

# 『기독교 강요』(1559)에 나타난 갈뱅의 교회론

황 기 훈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2005년 12월

# 『기독교 강요』(1559)에 나타난 갈뱅의 교회론

지 도 최 윤 배 교수

이 논문을 교역학 석사학위(M. Div.) 논문으로 제출함

황 기 훈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2005년 12월

황기훈의 석사학위(M. Div.) 논문을 인준함.

주 심: 최 윤 배 교수 \_\_\_\_\_ 인

부 심:                    교수 \_\_\_\_\_ 인

부 심:                    교수 \_\_\_\_\_ 인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2005년 12월

## 감사의 글

먼저 한 편의 논문을 완성할 수 있도록 넘치는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신학의 길을 들어선지 10년이 넘어선 지금에야 한편의 글을 쓰게 됨이 부끄럽고, 한편 새로운 시작을 다짐합니다.

신학의 중요성을 깨우쳐 주신 김명용 교수님, 학문 앞에서 겸손을 배우게 하신 윤철호 교수님, 언제나 성령님이 함께 하심이 느껴지는 현요한 교수님, 힘들어하는 우리를 달래 가며 라틴어를 열심히 가르쳐 주셨던 김도훈 교수님, 탁구장에서 함께 운동을 하면서 여성신학을 논했던 신옥수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1999년 개혁신학 수업을 통한 첫 만남에서 신학의 눈을 열어 주시고 지금까지도 바른 신학의 길로 인도해 주시며, 논문을 쓰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학자의 섬세함과 목회자의 자상함으로 지도해 주신 존경하는 최윤배 교수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신학의 길을 가도록 기도하고 사랑으로 보살피 준 포항동도교회 식구들, 부족한 종을 책망하지 않고 목회를 잘 가르쳐 주셨던 대구 제이 교회, 상주 시민 교회, 수서 교회 목사님과 교우들, 그리고 지금 나에게 너무도 소중한 영화교회 성도들과 부서 선생님과 아이들, 기쁜 마음으로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 그리고 바른 목회의 분이 되신 손훈 목사님께 머리 숙여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부족한 종의 앞날을 위해서 늘 기도해주시는 어머니와 장인, 장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무엇보다 부족한 나를 위해서 늘 애써주는 사랑하는 아내 허연옥과 믿음 안에서 잘 자라주는 나의 소중한 딸 은비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2005년 12월

황 기 훈

# 『기독교 강요』(1559)에 나타난 깔뱅의 교회론

## 목 차

I. 서론 .....	1
A. 논문의 목적과 의의 .....	1
B. 논문의 방법과 전개 .....	2
II. 깔뱅의 교회론 형성 배경 .....	5
A. 고대교부들의 교회론 .....	5
1. 사도적 교부(Apostolic Father)와 변증가의 교회론 .....	5
2. 헬라 교부와 라틴 교부의 교회론 .....	6
a. 헬라 교부의 교회론 .....	6
b. 라틴 교부의 교회론 .....	8
3. 어거스틴의 교회론 .....	10
B. 종교 개혁자들의 교회론 .....	14
1. 쾰빙글리의 교회론 .....	14
a. 선택된 자들의 모임 .....	14
b. 성례전 .....	15
2. 루터의 교회론 .....	16
a. 신자들의 모임으로서의 교회 .....	17
b.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전이 행해지는 곳 .....	18

c.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	18
d. 만인제사장론 .....	19
C. 중세 로마 가톨릭의 교회론 .....	20
1. 교회의 신적 설립 .....	20
2. 사도적 전승 .....	21
3. 예전(禮典)의 비의(秘儀)로서의 교회 .....	21
4. 위계제도적 법·국가로서의 교회 .....	22
5. 전 기독교와 인류의 중심으로서의 로마 가톨릭 교회 ..	23
III. 칼뱅과 『기독교 강요』 .....	24
A. 칼뱅의 생애 .....	24
1. 칼뱅의 교육과정 .....	24
2. 1, 2차 제네바 시절과 슈트라스부르크시절 .....	25
3. 인문주의가 칼뱅에게 미친 영향 .....	28
4. 교회론에 대한 칼뱅의 입장 .....	29
B. 『기독교 강요』의 저작 목적 .....	31
C. 『기독교 강요』의 구조 속에 나타난 교회론의 위치 ..	33
IV. 『기독교 강요』에 나타난 교회론의 본질 .....	37
A. 신자들의 어머니로서의 교회 .....	37
B. 가시적 교회와 불가시적 교회 .....	39

C.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	45
V. 『기독교 강요』에 나타난 교회의 기능 .....	49
A. 교회의 표지 .....	49
1. 말씀 .....	50
2. 성례 .....	52
a. 성례의 본질 .....	52
b. 세례 .....	55
c. 성찬 .....	57
B. 교회의 직분 .....	62
1. 목사 .....	64
2. 교사 .....	64
3. 장로 .....	65
4. 집사 .....	66
C. 권징 .....	66
VI. 결론 .....	69
A. 요약 .....	69
B. 제언 .....	71
참고 문헌 .....	74

# I. 서론

## A. 논문의 목적과 의의

“16세기 종교 개혁자 가운데서 슈트라스부르크의 부처를 제외하고는 칼빈만큼 교회론(Ekklesiologie)에 관심을 두고 연구한 사람은 없었다.”<sup>1)</sup>고 오토 베버는 말한다. 뿐만 아니라 갈뱅의 교회론은 그의 중심사상이라고 까지 그는 말한다.<sup>2)</sup>

갈뱅은<sup>3)</sup> 로마 가톨릭 교회의 모순과 오류를 면밀하게 분석해서 참된 교회의 표지를 정립하였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어머니로서의 교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확립하였다.<sup>4)</sup>

1884년 선교사가 한국 땅을 밟은 지 올해로 121년의 세월이나 된다. 120여년이 지나는 동안 한국교회는 놀랄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한국교회는 1907년 길선주 목사에 의해 주도되었던 평양 대 부흥운동으로 시작한 기도와 말씀, 전도, 봉사의 전통과 주기철 목사의 신사참배 거부로 인한 순교에 이르기까지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성장과 열매를 맺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신

---

1) O. Weber, *(Die) Treue Gottes in der Geschichte der Kirche*, 김영재 역, 『칼빈의 교회관』 (서울: 이레서원, 2001). 41-42쪽.

2) 위의 책, 42쪽.

3) ‘갈뱅’에 대한 명칭으로는 John Calvin(존 칼빈, 영어), Jean Calvin(장 갈뱅 또는 칼빈, 프랑스어), I(Johannes) Calvinus(요하네스 칼비누스, 라틴어), Johannes Calvin(요하네스 칼빈, 독일어), Johannes Calvinj(요하네스 갈베인, 네덜란드어)등이 있다. 필자는 이 중에서 그의 출신지역이면서 당시 가장 비슷했다고 생각되어지는 발음으로 ‘갈뱅’이라고 기록하도록 하겠다.

4) 김재성, “갈뱅의 교회론과 오늘의 교회 갱신”, 장로회신학대학 대학원 편집위원회 편, 『어거스틴, 루터, 갈뱅, 오늘의 개혁교회』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2004), 165쪽.

학적으로 정립 되지 않은 무수한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 이러한 문제를 일일이 열거하기는 곤란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이 되는 문제만 짚고 가려고 한다. 바로 바른 교회론의 부재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신학적으로 건전하고 편협하지 않은 바른 교회론에서 파생되어지는 교회의 바른 실천적 목표의 부재가 바로 오늘 한국교회의 비극적인 현실을 낳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필자는 이런 한국교회의 방향을 잡지 못하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건전하고 바른 신학적 교회론을 정립하고, 이를 토대로 오늘의 역사적 현실 속에서 바른 교회로 자리 매김하기 위한 교회의 실천적 목표를 찾아보려는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어 받은 개혁·장로교회의 시조라 할 수 있는 종교개혁자 칼뱅의 교회론을 고찰함으로써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을 비추어 볼 수 있는 신학적 주제를 얻고자 한다. 그래서 앞으로의 한국교회의 진로와 방향성을 모색해 보는데 그 의의를 둔다.

## B. 논문의 방법과 전개

본 논문은 위에서 제시한 연구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논문을 전개 하고자 한다.

먼저 앞부분에 칼뱅의 교회론이 나오기까지의 여정을 짚어 보려고 한다. 칼뱅의 교회론이 형성되기까지에 있어서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은 아닐 것이라 생각한다. 그에게 영향을 미친 교회론적인 배경이 있을 것이다. 그의 교회론을 형성하게 한 역사적 배경으로는 고대 교부들의 교회론으로, 당시대의 배경으로는 종교 개혁자들의 교회론으로, 특히 종교 개혁자들을 다룰 때 쾰링거와 루터가 종교개혁 1세대이기에 특별히 다루었다. 칼뱅에게 교회론

에 있어서 더 많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마르틴 부처의 교회론은 본론에 곳곳에 등장하기에 참고하는 정도로만 하였다. 이어서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회론을 살펴보면 로마 가톨릭 교회의 어떤 내용의 교회론이 갈뱅으로 하여금 그의 교회론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 볼 것이다. 이렇게 갈뱅에게 있어서 그의 교회론 형성 배경을 살펴 본 후에 『기독교 강요』 최종판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서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기능을 중심으로 논문을 전개 하고자 한다.

II장에서는 갈뱅의 교회론 형성 배경을 살펴보려고 한다. 먼저 고대 교부들의 교회론을 살펴볼 것이다. 여기서는 시대적 구분을 하여 사도적 교부 시대와 헬라, 라틴 교부 시대로 나누어서 그리고 이어서 어거스틴의 교회론까지 다루면서 이것이 갈뱅에게 끼친 영향을 살펴 볼 것이다. 그리고 갈뱅의 바로 앞 세대인 종교개혁자들의 교회론, 즉 츠빙글리와 루터의 교회론을 살펴봄으로서 개혁자들의 전통을 잇고 있는지 아니면 새로운 개혁을 하는지에 대해서 들여다 볼 것이다.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있다면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회론이다. 갈뱅이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회론에 문제가 있기에 그의 교회론이 나올 수 밖에 없었다고 전제를 하고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회론을 들여다 볼 것이다. 그런 후에 그의 삶이 교회론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생애와 관련해서 다룰 것이다.

III장에서는 갈뱅과 『기독교 강요』와의 관계를 다루겠다. 먼저 갈뱅의 생애를 살펴볼 것인데 그의 먼저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다루겠고, 다음으로 그의 사역과 관련해서 제네바와 슈트라스부르크에서의 사역을 중심으로 그리고 기타 갈뱅의 생애와 관련하여 다룬 후에 『기독교 강요』를 살필 것이다. 『기독교 강요』를 볼 때 먼저 저작 배경과 목적에 관해서 그리고 『기독교 강요』의 구조에 대해서 다룰 것이다. 그리고 끝으로 『기독교 강요』(1559년 판)의 구조 속에 나타난 교회론의 위치를 한번 짚으려고 한다.

IV장에서는 『기독교 강요』에 나타난 교회의 본질 중심으로 살펴 볼 것이다. 먼저 교육과 양육의 차원에서 구원받은 자들의 구원을 보존케 하는 신자들의 어머니로서의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즉 가시적 교회와 불가시적 교회, 교회의 일치와 관련하여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라는 주제로 교회의 본질을 살펴볼 것이다.

V장에서는 『기독교 강요』를 통한 교회의 기능을 살펴보고자 한다. 교회의 두 표지와 성례전, 여기에서는 왜 갈뱅은 세 표지를 하지 않고, 두 표지만 하였는가를 질문을 던지면서 교회가 교회 되는 두 가지 표지와 그 기능과 권징을 통한 그 기능을 살펴보고자 한다.

VI장 결론에 들어가서는 갈뱅의 교회론에 대한 요약과 제언으로서 한국교회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보겠다.

## II. 갈뱅의 교회론의 형성 배경

### A. 고대 교부들의 교회론

#### 1. “사도적 교부”(Apostolic Father)<sup>5)</sup>와 변증가의 교회론

교회론과 관련한 최초의 문서는 로마의 클레멘트(93-97)가 기록한 서신(94년경)이다. 그는 제 1클레멘트 XXXVII에서 새로운 이스라엘이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신약 성경적 표현을 사용하면서<sup>6)</sup>, “우리는 당신의 백성이요 양들입니다.”<sup>7)</sup>에서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분하여 고린도 교회가 올바른 질서와 화목 가운데 거할 것을 권고 하면서, 형제애와 선한질서가 교회의 본질임을 말하고 있다.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110)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은 어디에나 보편적인 교회가 있다.”<sup>8)</sup>고 했다. 그의 주요 관심사는 클레멘트와 같이 교회의 단합과 선한 질서로서, 감독-장로-집사들로 구성되는 교회의 질서를 강

---

5) ‘사도 후 교부’라고도 부르는 이 호칭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교부들’이라는 뜻에서 쓰이기 시작하였다. 즉 사도시대에 이어 거의 1세기 무렵부터 2세기 중엽에 활약한 교부들을 가리킨다. 이 말은 프랑스의 J. 코텔리에가 1672년 『사도시대의 교부』라는 책을 쓴데서 유래한다. 오늘날 여덟 사람의 집필자가 알려져 있는데, 로마의 클레멘스, 안타키아의 이그나티우스, 이즈미르의 폴리카르포스, 히에라폴리스의 파피아스, 『헤르마스의 목자』의 저자, 『바나바의 편지』의 저자 바르바와 『12사도의 교훈』의 저자 디오그네투스 등이 대표적 인물이다.

6) Clement, *1 Clement*, 57.2, LCC, I, 69.(=LCC는 *Library of Christian Classics*, 앞으로 LCC라고만 표기하겠다.), 이양호.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나타난 교회론”.(미간행 박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대학원, 1985), 65쪽에서 재인용.

7) Clement, *1 Clement*, 59.4, LCC, I, 71. 위의 논문, 65쪽에서 재인용.

8) Ignatius, *Smyrnaeans*, 8.2, LCC, I, 115. 위의 논문, 66쪽에서 재인용.

조한다.<sup>9)</sup> 먼저 그는 단일 감독제를 강조하면서 “감독이 나와 거행하는 모든 집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집회가 그랬던 것처럼 보편적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다.”<sup>10)</sup>라고 하였다. 그는 또 “모든 이는 집사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존경하십시오. 이는 감독이 하나님과 같고, 장로들이 하나님의 회의(Council of God)이며, 사도들의 모임인 것과 같습니다. 이들이 없다면 ‘교회’의 이름은 있을 수 없습니다.”<sup>11)</sup> 라고 했다. 이그나티우스는 교직자가 없이는 교회가 존재할 수 없다고 보았다.

속사도 시대 교부들의 문헌 가운데서 교회론이 가장 잘 표현된 책은 『헤르마스의 목자』(150년경)이다. 헤르마스는 교회를 하나님의 최초의 창조물로 보고, 교회의 거룩성과 교회 구성원의 도덕적 순수성에 전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원칙을 엄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거룩성이 교회의 본질적인 표시라고 강조한다.<sup>12)</sup>

## 2. 헬라 교부와 라틴 교부의 교회론

### a. 헬라 교부의 교회론

이레니우스(130-200년경)는 영지주의자들과의 논쟁 중에 자연스럽게 교회론에 관한 문제를 다루게 된다. 영지주의자들에 따르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과 세계에 대한 비밀스러운 지식(gnosis)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자신들이 사도들로부터 비전을 전수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이었다. 그

---

9) Williston Walker, *A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강근환 외 3명, 『세계기독교회사』(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5), 100-04쪽.

10) Eric G. Jay, 주재용 역, 『교회론의 역사』(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6), 48쪽.

11) 위의 책, 50쪽.

12) 위의 책, 52쪽.

는 사도의 전통을 계승한 것은 바로 교회로서, 교회의 공식적인 교사와 감독들의 계승과 더불어 전수되어 왔다고 주장한다.<sup>13)</sup>

터툴리안(160-220)은 그가 활동할 당시에 신학적으로는 일신론적 군주신론이 상당한 세력으로 등장해 있었다.<sup>14)</sup> 그는 다신론적 사회의 부패와 비합리성, 정치적 비리에 대해 강하게 논쟁하였다. 그는 교회의 본질을 순결과 거룩함에 두면서 교회의 전승을 잘 지키는데 있다고 주장하였다.<sup>15)</sup>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150-215)의 교회론은 플라톤의 형식이론에 영향을 받았다. 이것은 개개의 모든 경험적인 것은 영원의 세계 속에, 그 완전한 형태와 그 진정한 실체를 지닌다고 하는 개념이다. 그는 ‘지상의 교회’와 ‘천상의 교회’로 구분하고 ‘역사적이고 경험적인 교회’와 ‘영적인 교회’를 구분하여 ‘자상의 교회는 천상의 교회의 이미지’라고 한다.<sup>16)</sup> 그리고 지상의 참된 교회는 하나님이 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으며, 그 하나의 교회는 가톨릭 교회라고 한다.<sup>17)</sup>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교회의 교직제도는 위계질서가 격하된다.

클레멘트의 후계자인 오리겐(185-225)은 교회의 구성원은 하나의 성직을 가지고 있음을 “성직이 역시 당신에게, 즉 하나님의 교회 전체, 곧 믿는 자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모르는가?”<sup>18)</sup>라고 쓰고 있다. 결국 개개 신자들이 사제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그의 신학체계도 클레멘트처럼 전형적

---

13) 위의 책, 61쪽.

14) 차중순, 『교회사』 (서울: 대한 예수교 장로회총회출판국, 1992), 85쪽.

15) Eric G. Jay, 주재용 역, 『교회론의 역사』, 66-67쪽.

16) Clement, *The Stromota*, IV.8, *ANF II*, 421., (=ANF는 *The Ante-Nicene Fathers*의 약자로 앞으로는 ANF로만 표기 하겠다.), 이양호.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나타난 교회론”, 76쪽에서 재인용.

17) Clement, *The Stromota*, VII.17. *ANF II*, 554-55. 이양호.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나타난 교회론”. 130쪽에서 재인용.

18) Eric G. Jay, 주재용 역, 『교회론의 역사』, 78쪽.

인 플라톤의 사상이 기독교의 전통과 결합되었는데 오리겐은 경험적 교회와 영적인 교회를 구분한다. 그에 따르면 영적인 교회는 ‘진정한 교회’로서 에베소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결점이나 흠이 없고...거룩하며 완전한’ 것으로 표현한다.<sup>19)</sup>

이것은 성자 또는 완전한 자들의 모임이며, 반면에 경험적 교회는 ‘신자들의 모임’<sup>20)</sup>이다. 결국 동방교회의 오리겐과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는 교직제도의 위계질서를 격하시키고 교회를 신자들의 영적 공동체로 보았다.

#### b. 라틴 교부의 교회론

카르타고의 키프리아의 교회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데키우스(Decius) 황제의 박해 때에 배교한 사람들의 재입교 문제를 놓고서 교회를 떠난 노바티안(Novatian) 분파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한다.<sup>21)</sup> 250년경에 이르러서 로마의 교회는 40장로들, 7집사들, 42서리집사, 축귀사, 낭독사, 문지기 그리고 50000여명의 신자를 거느린 대교회로 성장했었다. 이 무렵 이탈리아 출신의 노바투스(Novatus)는 성년이 되어서 기독교로 개종하여 고위 성직자로 성장하고 있었다. 그는 데키우스 박해로 순교한 로마의 감독 파비안(Fabian)의 공석기간(250년 1월부터 251년 3월) 동안에 로마 교구의 업무대리인이 되었다. 그는 키프리아에게 보내는 글에서 박해기간 동안에 배교하였다고 재입교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엄격한 훈련을 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비어 있는 로마의 교황직에는 당연히 자기가 선임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재입교 문제에 있어서 온건한 입장을 취하던 무명의 코르넬리

---

19) Origen, *on Prayer*, XX.1, LCC, II, 277.이양호.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나타난 교회론”. 133쪽에서 재인용.

20) Eric G. Jay, 주재용 역, 『교회론의 역사』, 79쪽.

21) Henry Chadwick, *The Early church* (London : Penguin Books, 1967), 서영일 역, 『초대 교회사』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3), 99쪽.

우스(Cornelius)라는 사람이 대다수의 지지를 얻어서 선출되자, 엄격한 훈련을 주장하였던 소수의 무리들이 노바투스를 반-교황으로 선발하고서 교회에서 떨어져 나갔다. 문제가 이렇게 전개되자 양쪽 측에서는 해외에 있는 교회들에게 지지를 서로 호소하였으며, 안디옥의 파비안은 노바투스를 동정하였으나, 알렉산드리아의 디오니시우스와 카르타고의 키프리안은 교회의 분파를 가장 경계하여야 할 해악으로 보면서 보다 더 온건하고 부드러운 훈련을 지지하였으며, 이것이 곧바로 전 세계적인 호응을 얻기에 이르렀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키프리안의 교회론은 펼쳐진다. 그에게 교회는 영적인 실재로서 하나이어야 하며 실제로도 하나였다.<sup>22)</sup> 그는 교회의 기초와 교회의 정체, 거룩함, 그리고 통일을 떠받치는 기초를 사도들로 보고, 사도의 직분은 사도들의 계승자인 감독들에 근거를 두고 발전한다고 주장한다.<sup>23)</sup> 그리고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하나밖에 없고, 이 교회 밖에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으며, 감독은 사도의 계승자로서 친히 주님께 택함을 받은 자들로서 감독에게 반역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으로 설명한다.<sup>24)</sup>

즉 키프리안은 교회를 필요 불가결한 구원의 방주로 보는데 노바티안 분파의 경우는 교회가 없으므로 구원이 없다<sup>25)</sup>고 하면서 노바투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그가 교회 밖에서 가르치기 때문에 그가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흥미가 없다. 그리스도의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가 무슨 사람이든지, 어떤 중

---

22) 위의 책, 100쪽.

23) Williston Walker, 강근환 외 3명, 『세계기독교회사』 100쪽.

24) E. S. Moyer, *Great Leaders of Christian Church*. 곽안전, 심재원 역, 『인물중심의 교회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61), 96-97쪽.

25) Cyprian, *The Baptismal Controversy: Letter, 69.2, LCC, V, 155*. 이양호,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나타난 교회론”. 142쪽에서 재인용.

류의 사람이든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리고 교회를 어머니로 섬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그의 아버지로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으며(salus extra ecclesiam non est), 또한 교회 밖에서는 어떠한 성례전도 집행할 수 없다.<sup>26)</sup>

로마 가톨릭 교회의 조직과 그 권위는 모두 이 키프리안의 주장에 기초하여 세워진 것이다. 키프리안 시대에는 교회가 아직 성직 계급제도로는 되지 않았지만 이 방향으로 급속히 발전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 3. 어거스틴의 교회론

어거스틴은 도나투스파와의 논쟁 가운데 교회론을 발전시켰는데,<sup>27)</sup> 그들은 가톨릭을 반대해서 “거룩성”이 교회의 근본적 특성이며 참된 교회의 표상으로 생각하여 타락된 자는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sup>28)</sup> 즉 저들은 지상에서의 교회는 흠도 없고 주름잡히는 것이 없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 어렵다는 가톨릭의 주장을 반대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교회는 디오클레티안(Diocletian) 황제의 박해 때에 진리를 가르친 감독들이 교회를 지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고, 죄를 범한 교직자가 거행한 예전은 무효하고, 배교자인 성직자가 행한 세례는 효과가 없으므로 도나티스트 교회에서 다시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재세례론’을 주장하게 되었다.<sup>29)</sup>

---

26) Cyprian, *On the Unity of the Church*, 5. ANF, 5. 서영일 역, 『초대교회사』, 121쪽에서 재인용.

27) Bengt Hagglund, *History of Theology*, 박희석 역 『신학사』 (서울: 성광문화사, 1989), 169쪽.

28) Peter Brown, *Augustine of Hippo*, 차중순 역, 『어거스틴의 생애와 사상』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출판국, 1992), 307쪽.

29) 한철하, 『고대기독교사상』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0), 286쪽.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의 논리적인 정의가 요구되었는데, 어거스틴은 키프ريان 으로부터 유래된 서방 신학 전통을 이어받아 계속 발전시켜 나갔다.<sup>30)</sup> 먼저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비한 몸이라고 하여 일치성을 강조한다. 즉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가 하나의 전체라고 항상 말한다.

기록되기를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창2:24) 하였고,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러한 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마19:6)라고 하셨다. 이사야가 그리스도의 인성을 말할 때 매우 훌륭하게 둘을 하나로 표현하였으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느니라.” 동일한 화자가 자신을 동시에 신랑과 신부로 만드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이제 둘이 아니라 한몸”이기 때문이다. 교회가 그 몸에 참가 하였을 때 머리이시고, 몸이 되시는 전체 그리스도가 존재하신다.<sup>31)</sup>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에 소속하기 위하여서는 그분의 지체들을 사랑하여야 한다. 지체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결국 신자들은 한 몸의 지체들이므로 하나로 연합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교회의 일치성은 지체인 신자들 간의 사랑의 사귄으로 이루어진다. 어거스틴은 고린도전서 13장을 인용하며 “사랑이 없으면” 예언의 능력이 있어도, 모든 것을 아는 지식이 있어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이웃을 구제하고, 순교를 할지라도 결코 영원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한다.<sup>32)</sup> 그러므로 도나티스트들의 분파의 원인을 ‘형제에 대한 증오’로 보는 어거스틴

---

30) J. N. D. Kelly, *Early Christian Doctrines*, (Harper, 1958) 김광식 역, 『고대기독교 교리사』 (서울: 한국기독교문헌연구소출판부, 1980), 471쪽.

31) Augustine, *Homilies on 1 John*, 1.2, LCC VIII, 261. 이양호,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나타난 교회론”. 154쪽에서 재인용.

32) Cyprian, *Unity of Catholic Church*, 19. LCC, V, 137.위의 논문, 154쪽에서 재인용.

은 그들이 아무리 순교자적인 열심을 가지고 그것을 실천에 옮긴다 해도 그것이 아무런 유익을 주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도나티스트들이 가톨릭에서 떨어져 나간 것도 증명할 길도 없는 배교자 때문이 아니라 ‘형제에 대한 증오심’ 때문이라는 것이다.<sup>33)</sup>

또한 어거스틴은 키프리아의 사상을 계승하여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한다. 이와 같은 사상은 도나티스트도 주장하는 바이지만 누가 진정한 교회이냐의 문제가 따라왔다.

어거스틴은 도나티스트 분파주의자들이 아무리 정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가톨릭교회의 일치(Catholic Unity)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한 결코 그 믿음으로 유익을 얻지 못한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분파(Schism)의 동기를 ‘형제에 대한 증오심’으로 보기 때문에 형제에 대한 사랑(Caritas : charity)이 없는 곳에서는 믿음도 세례도 아무 유익이 없다(고전 13장)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밖에서는 순교를 한다고 해도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sup>34)</sup>

어거스틴은 가시적 교회와 불가시적 교회를 구별함으로서, 신자들의 영적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주장한다. 교회가 독자적으로 구원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구원의 기능을 가지는 것은 성령의 사역 때문이라고 말한다.<sup>35)</sup> 요컨대 그에게 있어서 교회는 고유하게 성령의 보증을 받은 구원의 기관이긴 하지만, 그 가시적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 성령의 역사

---

33) Augustine, *On Baptism*, I.15.23. *NPNF*, IV, 421쪽.,(=*NPNF*는 *The Nicene and Post-Nicene Father*의 약자로 앞으로는 *NPNF*로만 표기하겠다.), 위의 논문 154쪽에서 재인용.

34) Augustine, *On Baptism*, IV.17.25. *NPNF*, IV, 458쪽. 위의 논문 154쪽에서 재인용.

35) Augustine, *Enchiridion*, XVII.65. *LCC*, VII 377쪽. 위의 논문 154쪽에서 재인용.

로 보이지 않는 사랑의 띠로 묶여 있는 불가시적 교회와 교회 안에는 있으나 보이지 않는 사랑의 띠로부터는 단절되어 있는 구별이 있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제도적 교회 안에 참된 성도들의 영적 공동체인 불가시적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이다.

이상에서 본 것처럼 고대 시대의 교회론은 시대마다 바뀌어 왔는데, 당시의 이단이나 분파들에 대한 반박과 시대적 변화에 따라 바뀌어 왔음을 볼 수 있다.

로마의 클레멘트는 고린도 교회의 단합을 위협하는 반목을 화해시키기 위해 교회의 본질을 형제애와 선한 질서라 하였고, 이레니우스는 영지주의와 몬타누스 유형의 말세론이 교인들을 현혹시킬 뿐만 아니라, 박해의 위협이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사도적 계승을 강조하면서 교회의 감독들을 강조했다.

터툴리안은 이단에 대처하면서 교회의 본질을 교회 전승의 소유라고 했고, 알렉산드라의 클레멘트와 오리젠은 플라톤의 영향으로 교직제도의 위계 질서를 격하시키고, 교회를 신자들의 영적 공동체로 보았다.

분파주의자들을 비판하면서 교회론을 더욱 발전시킨 사람은 바로 카르타고의 키프리안과 어거스틴이다. 키프리안은 박해기간동안에 배교했다가 재입교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엄격한 훈련을 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교회에서 분리되어 나간 노바투스파를 향하여,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그가 무슨 사람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간에 그리스도인일 수 없고, 구원 받을 수 없으며, 교회 감독에게 반역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으로 정죄하였다.

어거스틴도 도나투스파와의 논쟁을 통해서 교회론을 발전시키는데, 그들은 “거룩성”을 참된 교회의 근본적 표상으로 삼고, 흠도, 주름도 없는 거룩한 교회를 주장하여 가톨릭 교회를 대적하였다. 이에 어거스틴은 지체인 신자들 간의 사랑의 사귄으로 연합되어야 하며, 사랑이 없이는 아무리 순교자적인 열심을 가지고 순교한다 하더라도 결코 영생을 얻을 수 없다고 했다. ‘형제에

대한 증오심'으로 분파를 일삼는 도나티스트 분파주의자들을 배교자라 정죄하면서, 키프리안의 사상을 계승하여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했던 것이다.

고대 교부들에게 있어서의 교회론의 형성처럼 종교개혁 시대에도 시대와 교회의 상황이 반영되어서 교회론이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 B. 종교개혁자들의 교회론

### 1. 쾰링의 교회론

개혁과 전통의 신학자 중에 최초의 신학자를 손에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쾰링을 들 수 있을 것이다.<sup>36)</sup>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되는 종교개혁의 발전 상황은 쾰링에 이르러 절정을 이룬다. 그래서 쾰링의 교회론을 살펴 보기 전에 쾰링의 교회론을 살펴보는 것은 타당하다고 본다. 아울러 쾰링의 교회론을 살펴봄으로 그의 신학이 쾰링에게 영향을 주었는가 하는 것도 가늠해 볼 수 있다.

#### a. 선택된 자들의 모임

쾰링에 의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계명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 선택받았음을 나타낸다.<sup>37)</sup> 이 선택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도록 예정된 참교회이다.<sup>38)</sup> 이 모임의 구성원은

---

36) Justo. L. González. *A History of Christian Thought*, vol.3, 이형기, 차종순 역, 『기독교사상사』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88), 100쪽.

37) 위의 책, 103-05쪽.

38) 위의 책, 111쪽.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으로 예정된 선택된 자들(*elcti qui dei voluntate destinati sunt ad vitam aelermam*)로 구성되어 있다.<sup>39)</sup> 결국 쾰빙글리에게 있어서 선택된 자들의 모임은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가운데 있는 교회이며 가시적인 면과 불가시적인 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즉 교회의 성례전에 참여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고 그를 고백하는 자들로 구성되었기에 보이는 교회이며, 오직 선택된 자들만 포함하기에 불가시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sup>40)</sup>

쾰빙글리의 가시적 교회는 지상적 공동체를 강조하는 것이며 불가시적 교회는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론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sup>41)</sup> 결국 이런 가시적 교회와 불가시적 교회의 이론은 갈뱅의 교회의 본질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 b. 성례전

쾰빙글리는 『참 종교와 거짓 종교에 관하여』(*On True and False Religion*)라는 논문에서 성례전의 이론을 제시한다.<sup>42)</sup> 성례에는 두 가지가 있다. 세례는 기독교인이 되는 첫 시작을 의미하고 주의 만찬은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승리 즉 마음에 새기고 또한 그리스도의 교회의 일원임을 나타낸다.<sup>43)</sup>

한편 세례는 교회와 연합했음을 보여주는 징표이기도 하다.<sup>44)</sup> 또한 하

---

39) 정정숙, “쾰빙글리의 교육사상연구”, 『신학지남』 제50권(1983. 3), 195쪽.

40) 위의 책, 112-113쪽.

41) 임희국, “쾰빙글리의 생애와 신학사상”,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교육부(편), 『16세기 종교개혁과 개혁교회의 유산』(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3), 229쪽.

42) 위의 책, 114쪽.

43) 위의 책, 114-115쪽.

44) 위의 책, 115쪽.

나님의 은총으로, 교회 즉 하나님의 백성의 단체로 불러 모아졌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기에 세례는 내적신앙의 표시와 상징에 지나지 않는다.<sup>45)</sup>

쯔빙글리에게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한다고 믿었다. 그러기에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의식은 이미 십자가 위에서 유일회적이고 충분한 희생을 통한 인류의 모든 죄 값을 치루신 그리스도의 죽음을 회상하고 기념하며 구원을 확신하는 것뿐이라고 주장하였다.<sup>46)</sup> 환언하면 성찬은 “Eucharistie” 즉 감사의 행위이다.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것에 대한 “기쁨의 회상”이요 공적인 감사의 행위라는 것이다.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이 은혜로 사는 사람들의 무리에 속한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것이다.<sup>47)</sup>

결국 쯔빙글리의 성례전의 의미는 희생적 의의<sup>48)</sup>와 성례전에 참가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교회에 소속됨을 확증하는 것<sup>49)</sup>이며 동시에 공식적 선서에 의한 단합과 충성의 표시이다.<sup>50)</sup>

이러한 쯔빙글리의 성례전은 후에 루터(M. Luther)와의 격렬한 논쟁으로 이어졌고 갈뱅은 루터의 “공제설”과 쯔빙글리의 “기념설”의 중간적 입장을 취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쯔빙글리의 교회론적 사상은 갈뱅에게도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 2. 루터의 교회론

---

45) 정정숙, “쯔빙글리의 교육사상연구”, 『신학지남』 제50권(1983. 3), 199쪽.

46) 이수영, “쯔빙글리의 성찬론”, 『교육교회』 (통권 194, 1992. 4), 55쪽.

47) 위의 책, 56쪽.

48) 정정숙, “쯔빙글리의 교육사상연구”, 『신학지남』 제50권(1983. 3), 199쪽.

49) 이수영, “쯔빙글리의 성찬론”, 『교육교회』 (통권 194, 1992. 4), 56쪽.

50) 정정숙, “쯔빙글리의 교육사상연구”, 『신학지남』 제50권(1983. 3), 199쪽.

중세 교회는 평신도와는 비교가 될 수 없는 성직자의 우월성을 내세워 중세시대 특유의 성직제도의 교회, 즉 상급 성직자에게 복종하는 시종단체(侍從團體)가 되었고, 또 교회가 국가의 군주들을 지휘하는 성직자의 국가를 이루었다.<sup>51)</sup>

가톨릭교회는 지상의 신국이므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사교구역(司敎區域)은 지상의 왕국이라고 하는 사상의 발전은 교회를 실제적으로 세속화시키고 말았다.<sup>52)</sup>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향하여 모든 의무와 봉사의 행위가 필요했으며, 교회는 그들을 지배하는 결과를 빚게 되고 만 것이다. 또한 구원의 모든 축복이 교회의식을 통하여 온다고 믿어 교회의 형식적 의식을 중요시하는 결과를 낳았다.<sup>53)</sup>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대신 인간의 종교의식과 교황이 교회를 지배하게 된 것이다.<sup>54)</sup> 이러한 상황 속에서 루터는 교회로 하여금 교회되게 하고, 성서적 진리를 만들어 내기 위해 불가불 로마 가톨릭 교회에 저항해야 했다.<sup>55)</sup>

#### a. 신자들의 모임으로써의 교회

“이신칭의”의 교리, 곧 믿음에 의해서만 의롭게 된다는 루터의 종교개혁의 원리가 그의 교회론에 영향을 주게 된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의롭게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Congregatio fidelum)이다.<sup>56)</sup> 온 세계를 합하

51) Williston Walker, 강근환 외 3명 『세계기독교회사』 263쪽.

52) L. Berkhof, *Christian Doctrines*, 신복윤 역, 『기독교 교리사』 (서울: 경천애인사, 1963), 257쪽.

53) 위의 책, 257-258쪽.

54) Kurt Aland, *Four Reformers*, 김홍수 역, 『종교개혁가들』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현대 신서131, 1984), 33쪽.

55) 주재용, 『기독교의 본질과 역사』 (서울: 전망사, 1983), 45쪽.

56) J. L. Neve, 서남동 역, 『기독교 교리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65), 361쪽.

여 단 하나의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교회가 있는데 이는 성도들의 모임 (congregation)이요, 총수(assembly)이다. 이는 성령께서 모으시고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며 성례전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건하게 되는 지상의 모든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로서 교회는 성직 계급 중심의 교회에서 벗어나 신자 중심의 그리스도인 공동체라는 본래적 의미를 갖게 되는데 루터에 의하면 기독교인은 죄인이면서 의인이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거룩한 백성이다.<sup>57)</sup>

#### b.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전이 행해지는 곳

루터는 내적교회와 외적교회를 구분하면서 지상에서 현존하는 내적 교회를 식별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세례, 성만찬(sacrament) 그리고 설교(복음)라 하였다. 이는 세례와 설교가 있는 곳에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기 때문이다. 루터에 의하면 선포되는 말씀이야말로 우리에게는 참 교회의 틀림없는 표지가 되어야 한다. “즉 복음은 성찬의 떡이나 세례보다 월등하게, 유일의, 확실하고 탁월한 교회의 표지다. 즉 교회의 전 생명과 실체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 있다. 나는 쓰여진 복음이 아니라 입으로 전해진 복음을 말하고 있다.”<sup>58)</sup>

교회에 대하여 생각할 때 우리는 완전한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기독교인들의 어떤 집단도 무흠한 집단은 없으며, 인간적 실패들이 교회의 진정한 존립을 손상시키지도 않는데, 교회의 존립을 위하여서는 말씀과 성례전으로 충분하다고 그는 말하고 있다.

#### c.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

57) 이형기, 『종교개혁신학사상』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2), 361쪽.

58) 위의 책, 362쪽.

교회는 그 본질상 성도의 교제(communio sanctorum)이지만 그 선택된 자는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감추어져 있고 불가시적”<sup>59)</sup>이다. 루터는 혼합되어 나타나는 이 경험적인 교회를 보면서 ‘내적인 기독교’와 ‘외적인 기독교’를 구분하는 데 ‘내적인 기독교’는 제 1의 것으로 본래적이고 근본적이며 순수한 것이고 ‘외적인 기독교’는 사람이 만든 제 2의 것으로 외면적이고 신체적이다. 이것은 어거스틴의 두 개의 도성, 두 왕국 두 영역(realms)에서 온 것으로 루터는 먼저 복음과 율법의 구별에서 시작하고 있다.<sup>60)</sup> 루터는 ‘가시적,’ ‘불가시적’이라는 말보다는 육적(bodily), 영적(spiritual)이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영혼과 육체 사이의 관계처럼 분리하여 생각할 수도 없다고 본다. 교회 역시 분리된 것이 아니고 신령한 불가시적 교회는 말씀의 교회로서 외부적으로 규정할 수 없는 방법으로 거듭남을 가져다주고, 보이는 교회의 성례전은 그것을 외부적으로 나타내 보여준다는 것이다.<sup>61)</sup>

#### d. 만인제사장론

루터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벧전2:9)는 말씀을 중요시한다. 성직자와 평신도는 다 같은 성도로서 성직자는 다만 교역의 임무를 맡는 다는 것이 다를 뿐이라는 것이다.<sup>62)</sup> 바울은 또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롬12:1)고 말하는데 바울의 이 권고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제가 되도록 하는 것이고 그것은 제사 뿐 아니라 이웃에 대한 봉사의 책임을 완수해야 된다는 것이다.<sup>63)</sup> 즉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제사장이라는 것이다. 자신에

59) Paul. D. L. Avis, *The Church in the Theology of the Reformers*, 이기문 역, 『종교개혁자들의 교회관』(서울: 키클디아사, 1987), 126쪽.

60) 이형기, 『종교개혁신학사상』, 364쪽.

61) Paul. D. L. Avis, 이기문 역, 『종교개혁자들의 교회관』, 127-28쪽.

62) 이형기, 『종교개혁신학사상』, 366쪽.

대한 제사장이며 타인을 위한 제사장이다. 이는 루터의 교회론의 절정이고 탁월한 특성이다. 사제의 직책이나 지위가 특권이 아니라 섬김의 의무로 이해한다는 것이다.<sup>64)</sup>

### C. 중세 로마 가톨릭의 교회론

고대 교부들과 개혁자들이 자신들의 교회론을 펼침에 있어서 당대의 정황을 배후에 두고 있듯이 칼뱅의 교회론 역시 로마 가톨릭의 잘못된 교회관에 대한 성서적 비판에서 비롯된다. 즉 칼뱅의 교회론의 특징을 잘 이해하기에 앞서서 그가 비판한 로마 가톨릭의 교회론의 특징을 고찰하는 것은 불문가지이다. 이런 이유에서 이제 로마 가톨릭의 교회론을 한번 살펴보자.

#### 1. 교회의 신적 설립

1442년에 유게누스 4세가 “야콥파에 대한 교령”(Decretum pro jacobitis)을 발표하면서 말하기를 로마교회는 우리 구주의 말씀위에 기초를 둔 신성한 교회라고 했다. “구주의 말씀”이란 개신 교회가 생각하는 것처럼 성경이나 선포된 말씀으로서의 설교나 말씀 자체이신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기록된 대로 예수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에게 한 그 말을 의미한다. 그리고 예수가 한 말씀에 따라 그가 직접 지상에서 교회를 세우셨다고 한다.<sup>65)</sup> 즉 그들은 로마 가톨릭 교회야 말로 그리스도께서 직접 세우신 교회로서 그 기원은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이다.

---

63) J. L. Neve, 서남동 역, 『기독교 교리사』, 361쪽.

64) Paul. D. L. Avis, 이기문 역, 『종교개혁자들의 교회관』, 126-28쪽.

65) 이종성, 『교회론』(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9), vol.1, 173쪽.

로마교회는 더 나아가서 그렇게 형성된 교회를 이 역사 안에서 가장 완벽한 법적, 사회적 구성요소를 가진 사회(societas)로 본다. 개인의 신앙체협이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인하고 법적으로 통일된 무리를 주장한다. 즉, 로마 가톨릭 교회는 신에 의해서 건설된 법적으로 완전한 통일체로서의 교회를 강조한다.<sup>66)</sup>

## 2. 사도적 전승

로마 가톨릭 교회는 동일한 신앙을 고백하여 세례를 받은 후 동일한 성례전에 참여하며 하나의 가시적 머리(교황)아래 그의 대리자들(주교)에 의해 통치되는 모든 신실한 사람들의 모임의 의미이다. 이러한 생각은 계층 구조적 성직계급과 교황권을 발전시키는데 로마 가톨릭 교회는 사제직과 평신도 직이라는 이중 구조를 갖는다. 교회는 사제직에 의해 지도되고 감독된다. 사제들은 베드로의 사도직을 계승한<sup>67)</sup> 지상의 대리자 교황과 그의 위탁을 받을 성별된 사람들이다.<sup>68)</sup>

## 3. 예전(禮典)의 비의(秘儀)로서의 교회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영을 포기한 후에 그 옆구리를 창으로 찢려 거기에서 흘러내린 물과 피에 의해서 비할 데 없고 티가 없는 처녀성모인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sup>69)</sup> 여기에서 신적 구원이 흘러내려

---

66) 위의 책, 174쪽.

67) Eric G. Jay, 주재용 역, 『교회론의 역사』, 19쪽.

68) 한철하, 『고대기독교』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5), 49쪽.

69) 이종성, 『교회론』, 175쪽.

교회를 통하여 모든 인류에게 전달된다. 그 일이 가능한 것은 교회가 과거 십자가 위에서 성취된 그리스도의 희생을 계속해서 제단 위에 바칠 전권을 의탁 받았기 때문이다. 이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성직자에게 결정적인 임무와 위치가 주어진다. 즉 성직자만 성체(聖體, Eucharistia)의 희생물을 바칠 수 있으며 그들만 거룩한 구원을 인류에게 전달할 수 있다.<sup>70)</sup>

신적 구원은 교회를 통하여 모든 인류에게 전달되고 그 수행은 사제들의 고유 임무이다. 즉 사제만이 성체(Eucharistia)의 취급으로 구원을 인류에게 전달한다. 이 사제직은 그리스도에 의하여 제정되어 그의 몸과 피를 성별하여 봉헌하고 분배할 수 있으며 죄를 용서하거나 용서하지 않을 수 있는 전권을 부여받았다. 교회는 죄의 용서와 구원의 비의(秘儀)를 간직하고 취급하는 기관(institution)이다.

#### 4. 위계제도적 법·국가로서의 교회

로마교회는 성직자의 직권을 극대화 하여 법 국가의 위치에 끌어 올린다.<sup>71)</sup> 사제는 교회를 지배하고 다스리기 위하여 부름 받은 사도의 후계자로서 신-인간의 중보자이다. 서품은 성례이다. 사제는 권위와 거룩, 권능과 “입법권 (potestas legifera), 사법권 (potestas iudicialis), 처벌권 (potestas coactiva) 을 가진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위임으로 교황은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그 권한은 연옥에 까지 미친다.<sup>72)</sup>

---

70) 위의 책, 175쪽.

71) 위의 책, 176쪽.

72) Louis, Berkhof, *Introduction to systematic theology* (Edinburgh : Banner of Truth Trust, 1974), 권수경, 이상원 역, 『벌롭조직신학』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1), 279쪽.

## 5. 전 기독교와 인류의 중심으로서의 로마 가톨릭 교회

로마 가톨릭은 세상과 인류의 중심이다. 교황은 지상에 있는 우두머리로써, 하나의 교회, 거룩한 교회, 보편적 교회, 사도적 교회는 물론 전 세계의 모든 민족까지 그 동일한 원리에 의해 다스린다. 참 교회에 소속된 증거는 참 신앙을 고백할 것과 예전(sacramentum)에 참여할 것과 교황에 복종할 것 등이다. 여기에서 키프리안의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extra ecclesiam nulla salus)’는 극대화 된다. 로마 교회는 기독교의 핵으로, 우주의 중심으로 그 중앙에는 인간의 죄와 그 사람의 구원의 여부를 판단하고 선포할 수 있는 유일의 구원자인 교황이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을 강조하는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교회의 제도적 구성과 순종을 강조하는 교회론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sup>73)</sup>

---

73) 이종성, 『교회론』, 177-79쪽.

### III. 칼뱅과 『기독교 강요』

#### A. 칼뱅의 생애

칼뱅의 생애를 다루는 것은 흥미로운 주제이다. 다룰 수 있는 소주제가 많기 때문이다.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논할 수도 있고 그의 목회지<sup>74)</sup>를 중심으로 논할 수도 있다. 필자는 칼뱅의 전 생애를 논하는 친절한 작업을 다른 논자들에게 맡기고 여기에서는 그의 통합적 사교의 중요한 원인인 교육과정과 『기독교 강요』를 저술하였고 가장 오랫동안 체류하였던 제네바에서의 활동을 중심으로만 살펴보고자 한다.

##### 1. 칼뱅의 교육과정

칼뱅은 1509년 7월 10일 오늘날 벨기에와 프랑스 파리 사이에 있는 누아용에서(Noyon) 태어났다. 그는 14세쯤 되던 해에(1523) 파리대학 소속인 마르쉬 대학에서(Collège de la Marche) 꼬르디에(Mathurin Cordier)에게 라틴어를 배웠다. 아마도 이 과정에서 프랑스에 들어온 르네상스 인문주의를 맛보기 시작했을 것이다.<sup>75)</sup> 1526년에 신학연구를 위해 몽뻬귀 대학(Collège de

---

74) 칼빈은 제네바에서(1536-1538), 슈트라스부르크에서(1538-1541), 다시 제네바(앞의 제네바시절을 1차, 지금을 2차로 구분하자)에서(1541-1564) 사역을 하였다. 처음에 칼뱅은 파렐의 권유로 제네바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doctor)로 시작하여 프랑스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목회도 하였고, 슈트라스부르크대학(Gymnasium)에서 공식적으로 신학교수를 하기도하였다. 물론 그의 사역 가운데 위대한 『기독교 강요』의 저술의 업적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최윤배, “요한 칼빈의 생애와 신학사상”,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부편, 『16세기 종교개혁과 개혁교회의 유산』, 250-260쪽.

75) T. H. L. Parker, *Portrait of Calvin*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40), 13. 이형기, 『종교개혁신학사상』, 255쪽에서 재인용.

la Montaigu)으로 전학하였다. 이 대학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정통주의 요새로서 혹독한 신앙 훈련시키는 곳으로 유명했다. 그는 이곳에서 르네상스 인문주의를 반대하던 베다(Noel Bèda)와 똥빼뜨(Pierre Tempête)에게서 토론기술을 배웠고, 둔스 스코투스(Duns Scotus), 옥캄(William of Ockham), 비엘(Gabriel Biel)등 후기 중세 스콜라주의 신학을 접하며 특히 롬바르드의 조직신학(Sentencia)도 배웠다.<sup>76)</sup> 이곳에서 열악한 음식<sup>77)</sup>과 지독한 경건 훈련으로 훗날에 큰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도 하였지만 그의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본다. 깔뱅은 30세도 안되어 기관지천식, 편두통, 소화 불량 등이 있었고, 50세에 이르러 관절염 출혈, 늑막염, 결핵이 심했다.<sup>78)</sup> 1527년경에 문학 석사를 받고 그는 아버지의 권유로 성직자가 되는 것을 포기하고, 1528년부터 오를레앙(Orléans)에서 법학을 시작했다. 이곳에서 르네상스에 깊이 접하면서 성경을 불어로 번역했던 인문주의자 올리베탄(P. R. Olivétan)으로부터 기독교의 참 모습은 성경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그리고 2년 동안 부르주(Bourge)대학에서 수학하면서 계속 인문주의와 접하였고 당시 루터신학의 권위자였던 볼말(Wolmar)에게서 회랍어와 복음주의 신학을 배웠다.<sup>79)</sup>

## 2. 1, 2차 제네바 시절과 슈트라스부르크시절<sup>80)</sup>

76) 이형기, 『종교개혁신학사상』, 255쪽.

77) 최윤배는 “요한 칼빈의 생애와 신학사상”,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부(편), 『16세기 종교개혁과 개혁교회의 유산』, 260쪽에서 똥빼뜨를 ‘전율하는 폭풍’이라고 풍자하고 식사로 주어지는 ‘썩은달걀’은 견딜수 없었다고 기록하면서 얼마나 열악한 교육환경이었는데가를 잘 예를 들고 있다.

78) 이형기, 『종교개혁신학사상』, 256쪽.

79) Jean Cadier, *Calvin* (Ev.Verla, A. G. Zollikon, 1959), 22쪽, 이형기, 『종교개혁신학사상』, 257쪽에서 재인용.

80) 최윤배는 “요한 칼빈의 생애와 신학사상”,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부편,

기독교강요는 초판이 1536년에 나왔고 최종판이 1559년에 나왔다. 이 기간 중에 칼뱅은 제네바와 슈트라스부르크에서 목회를 하였으며 그의 사상을 실천적으로 실현하고 검증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러한 검증과 실천은 그의 기독교강요를 목회지향적인 교리서로 만들게 하였고 신학과 현실사이를 조화롭게 통합할 수 있는 신학으로 성숙케 하였다.<sup>81)</sup>

제네바에서의 칼뱅의 개혁의 특징은 성만찬과 교회의 치리와 훈련의 엄격화였다. 교황주의 교회가 평신도에게 일년에 두 세번 정도 허락하였던 성만찬을 칼뱅은 매주 예배 시에 성만찬에 참여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안은 너무 혁명적이어서 칼뱅은 매월 한번정도 성찬을 베풀어야 한다고 양보하였다. 그리고 치리에 있어서의 개인의 잘못들을 목사에게 보고하게 하였으며 교정을 시도하고 실패할 때 파문을 할 수 있도록 목사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였다. 그러한 개혁은 찬성과 아울러 강력한 반대를 받았다. 그리고 개혁을 주도한 칼뱅과 파렐이 프랑스 사람이라는 것도 반대자들의 의심을 가져오는 요인이었다. 결국 제네바의회는 1538년 성만찬 회수를 년 간 4회로 줄이고 목사들의 파문 권한을 박탈했다. 그리하여 칼뱅과 파렐은 1538년 부활절 때 성만찬 집례를 거부하고 제네바를 떠났다. 제네바는 그들을 향해서 “배신자들을 로느(Rhône) 강에 던져라.”고 소리쳤다.<sup>82)</sup>

칼뱅은 제네바를 떠나 있는 동안 슈트라스부르크에서 계속 프랑스 피난민 목회를 하였다. 이 기간 중에 그는 결혼을 하고 로마서 주석을 내고 『기독교 강요』를 다시 썼다. 1539년 판 『기독교 강요』 서문에는 “이 저

---

『16세기 종교개혁과 개혁교회의 유산』에서 칼뱅이 제네바에 머무르던 시절을 1차 제네바 시절(1536-1538)과 2차 제네바 시절(1541-1564)로 나눈다.

81) 최윤배, “요한 칼빈의 생애와 신학사상”,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부편, 『16세기 종교개혁과 개혁교회의 유산』, 262-69쪽.

82) 위의 책, 264쪽.

술에서 나의 목적은 신학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준비와 훈련을 충분히 잘 하므로 성경에 쉽게 접근하고 부단히 성경연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었다.”고 하였다. 파커는 갈뱅이 멜랑히톤처럼 주해의 기초를 생략한 주요교리들의 소론을 펴거나, 부처처럼 본문의 번역, 주해, 교리를 한꺼번에 펴내는 양극단을 피하여 두 권으로 나누어 내었다고 하였다. 한권은 주석 자체이고 한권은 『기독교 강요』였다.<sup>83)</sup> 이 때 갈뱅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사건은 부처를 만난 일이다. 갈뱅은 그의 신학의 주요한 교리인 예정, 이중 선택등의 교리를 부처에게서 배웠다.<sup>84)</sup>

갈뱅과 파렐이 제네바에서 추방된 후 제네바시의 의회와 교회는 혼란 속에 있었다. 결국 제네바시는 갈뱅과 파렐을 다시 부를 수밖에 없었다. 제네바시 의회는 “교회가 제대로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초대교회가 보여주는 확립된 직제와 정치를 가져야한다.”는 갈뱅의 주장에 호응하여 갈뱅을 비롯한 목사들에게 기독교를 위한 직제와 정치를 작성케 하였다. 갈뱅은 교회가 질서가 잘 잡히려면 4중적인 직제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갈뱅은 성경을 강해하고 주석하는 설교를 하였다. 1543년 기독교강요를 다시 썼고 많은 성경 주석과 논문들을 내었다. 그는 이 기간동안 삼위일체론적으로 세르베투스(Michael Servetus=Servet), 까롤리, 겐틸리(Gentili)와의 논쟁, 섭리론에 있어서 볼섹(Jerome Bolsec), 카스텔리오(S. Castellio)와의 논쟁, 자유의지와 노예의지를 중심으로 피기우스(A. Pighius, 1490-1542 ; 네덜란드 Kampen 출신)와의 논쟁, 성찬론으로는 루터파 신학자들, 특히 베스트팔(Westphal)과의 논쟁, 계약과 유아세례 중심으로는 재세례파와의 논쟁, 그 외에 소위 자유주의자들(Les Libertines : Ami Perrin, Philibert Betheliers, Pierre

83) T. H. L. Parker, 김지찬 역, 『존 칼빈의 생애와 업적』(서울: 생명의 말씀사, 1962), 157쪽.

84) 최윤배, “요한 칼빈의 생애와 신학사상”,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부편, 『16세기 종교개혁과 개혁교회의 유산』, 265쪽.

Vandel)의 도전을 물리쳤다.<sup>85)</sup>

갈뱅의 생애를 보면 그가 본래 원하던 것은 학자로서 기독교의 진리를 파헤치고 가르치는 일이었다. 그러나 그는 실천적 목회자로 요청되었고 그 때에 그에게 특징적으로 나타난 사실은 강력한 조직, 치리를 통한 효과적인 교회운영과 교인들의 도덕적 생활의 함양이었다. 여기서도 갈뱅의 인간의 성화와 행함에 얼마나 다급해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고 그가 학문과 실천을 성경의 진리 안에서 항상 같이 병행하여 통합 실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 인문주의가 갈뱅에게 미친 영향

종교개혁의 준비역할을 했던 것으로 종교적 요인 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문예부흥 또는 인문주의였다. 인문주의의 영향은 합리주의로 이어지는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건전한 학문, 성경과 교부들의 연구, 올바른 전통과 교회의 바른 행정에 대한 통찰로 안내하였다. 이로 인해 새롭게 기독교 원전에 대해 연구하게 되었고 이것이 종교개혁의 한 준비가 되었으며, 무엇보다도 새로운 성경의 주해방법을 가져오게 했다.<sup>86)</sup> 즉 헬라어와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연구하도록 하여 부정확한 성경번역으로 인하여 닫혀있던 기독교 복음의 진리가 평신도들에게 널리 확산되게 하였다.<sup>87)</sup>

갈뱅도 역시 인문주의자로서 학문적 소양을 쌓았다. 그는 14살에 부친의 뜻을 따라 사제 수업을 받다가 법학으로 전환했으나 부친이 죽자 법학공부를 계속하면서 문학공부를 하였다. 그 후 파리 왕실 학교에 다니면서 희랍어와 히브리어를 익히면서, 세네카의 『관용론 주석』을 준비해 1532년 출판함

---

85) 위의 책, 266쪽.

86) Williston Walker, 강근환 외 3명, 『세계기독교회사』, 325쪽.

87) 위의 책, 326쪽.

으로서 일약 인문주의자들 가운데서 유명해지기 시작했다.<sup>88)</sup> 세네카의 관용론에 나타난 갈뱅의 정치적 안목은 여전히 그의 정치신학으로 남아서 제네바 교회와 도시 정치 구조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sup>89)</sup>

이 후 갈뱅의 작품들에 나타난 빼어난 논리적 전개는 그의 인문주의적 경향을 아주 잘 나타내주고 있다.<sup>90)</sup> 그가 로마 가톨릭의 미신적인 의식들을 공격하고 거짓된 전통을 배격하는 데에 인문주의적 소양이 크게 작용한 것이다. 그의 주장의 모든 근거에 철저한 성경주해가 놓여 있는 것은 인문주의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갈뱅은 인문주의자로 시작했으나 1536년 그의 『기독교 강요』의 출판과 더불어 예전의 인문주의자가 아닌 종교개혁자의 한 사람으로 되었다. 그의 인문주의적 소양은 개혁의 한 도구로 사용될 뿐이었다. 이는 갈뱅의 경건이 자기의 학문적 경향을 지배하기 때문이었다.

#### 4. 교회론에 대한 갈뱅의 입장

교회론에 대한 그의 첫 번째 주된 논의는 1539년에 출판된 『기독교 강요』의 제2판에서 발견된다. 비록 갈뱅이 1536년의 초판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당시 그는 교회의 목회나 책임 있는 자리를 떠맡아 본 경험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갈뱅이 제 2판을 출간할 무렵에는 새로운 복음주의적 교회들에 제기된 문제들에 관해 많은 경험을 축적하게 되었다.<sup>91)</sup>

---

88) Théodore de Bèze, *La vie de Jean Calvin*(Chalon-sur-saône cédex : Europresse, 1993), 19-28. 참고 : 데오도르 베자(Beza), 김동현 역 『존 칼빈의 생애와 신앙』(서울: 목회자료사, 1999), 33쪽에서 재인용.

89) François. Wendel, 한국칼빈주의연구원 편역, 『칼빈의 신학 연구』(서울: 기독교문화사, 1986), 391-93쪽.

90) 위의 책, 386-96쪽.

칼뱅에게 있어서 참된 교회의 표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가 올바르게 시행된다는 것이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심지어는 교회에 대한 최소한의 정의조차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주의자들이 가톨릭 교회를 떠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복음주의적 교회들이 교회의 이러한 정의에 부합하기 때문에, 복음주의적 교회들이 또 다시 분열한다는 것은 정당화 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 점은 매우 중요한 것 같다. 이것은 복음주의적 회중이 여러 파당으로 또 다시 분열된다고 하는 것은 종교 개혁의 목적에 치명적이라는 칼뱅의 정치적 판단을 반영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잠시 칼뱅의 말을 보자. “그 교회를 버리고 그 단결을 파괴하는 것은 더욱 용인할 수 없다. 주께서는 그의 교회의 교통을 심히 중요시 하시므로, 교회가 말씀과 성례를 소중히 여긴다면 그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떠나는 교만한 사람을 배반자와 배교자로 여기신다.”<sup>92)</sup> 왜냐하면 그의 몸은 나눌 수 없기 때문이다.<sup>93)</sup>

1543년 무렵, 칼뱅은 특히 슈트라스부르크에 체류하면서 목회 사역에 대해 훨씬 더 많은 경험을 쌓게 되었다. 슈트라스부르크 종교 개혁의 배후에서 지적 동력이었던 부처는 목회자로서 상당한 존경을 받고 있었으며, 이후의 칼뱅의 교회론에 개인적 영향을 적지 않게 끼친다. 예를 들어 칼뱅이 사용하고 있는 가시적 교회와 불가시적 교회의 구별은 부처의 저술들 속에서 분명히 발견되고 있다.<sup>94)</sup> 칼뱅에 따르면, 성경에서 “교회”라는 말은 두 가지 다른 의

91) Williston Walker, 강근환 외 3명, 『세계기독교회사』, 390쪽.

92) Inst IV. i. 10. (= Calvin, John, *Calvin's institutes*, 김종흡외 3인 역, 『기독교 강요』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6), 앞으로 칼뱅의 『기독교 강요』를 인용할 때, 원문을 참조 하여 인용 각주에는 ‘Inst’로 약자로 표시하겠다.

93) Wilhelm Niesel, *Die Theologie Calvins, München 1957*<sup>2</sup>(1938)(= *The Theology of Calvin, Grand Rapids 1980* = 이종성 역, 『칼빈의 신학』 (서울: 기독교 서회, 1973), 195쪽.

미로 사용되고 있다. 한 가지 경우는 살아 있는 자들이나 죽은 자들을 모두 포함하는 불가시적인 전체의 선택된 무리를 지칭한다. 다른 한 가지 경우는 현재의 생존해 있는 회중들로 구성되는 “가시적”교회를 지칭할 때이다. 갈뱅은 가시적 교회의 경우에 올바른 목회 질서에 관한 구체적인 성서적 지시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 제도의 구체적 형태가 교리의 한 항목을 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서, 그는 교회 행정이라는 특정한 형태를 “순수하게 선포되는 복음”속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교회에 대한 갈뱅의 최소한의 정의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 받게 된다. 참된 교회는 복음이 올바르게 선포되고, 성례가 올바르게 시행되는 곳에서 발견된다. 그리고 이 정의에는 교회 제도와 행정의 특정한 형태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갈뱅은 “주님께서 자신의 교회가 다스려지기를 원하는 질서”에 대해 말하고 있으며, 자신의 신약 성서 해석에 근거하여 교회 정부에 관한 자세한 이론을 발전시키고 있다.<sup>95)</sup>

갈뱅은 하나님의 말씀 선포의 중요성을 여전히 보존하면서도, 이제 이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정부의 특정한 형태를 규정해 준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성서의 해석에 있어서 새롭고 대담한 진전이었다. 이것은 또한 갈뱅에게 가톨릭과 급진주의자들을 판단하고 이들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해 주었다. 루터가 모호한 입장을 취했던 곳에서 갈뱅은 정확한 의견을 개진했다. 그리하여 갈뱅이 죽을 무렵(1564년), 개혁파 교회는 가톨릭의 경쟁자가 될 만큼 제도적으로 확립되어 있었다.

## B. 『기독교 강요』의 저작 목적

94) 최윤배, “요한 칼빈의 생애와 신학사상”,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부편, 『16세기 종교개혁과 개혁교회의 유산』, 307-08쪽.

95) Ernst Troeltsch, *The Social Teaching of the Christian Churches*, 220. 테오도르 베자(Beza), 김동현 역 『존 칼빈의 생애와 신앙』, 42쪽에서 재인용.

종교개혁자 칼뱅이 『기독교강요』를 저술한 목적은 다음 두 가지로 나타난다.<sup>96)</sup>

첫째는 실제적인 목적이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교의 교리를 가능한 단순하면서도 조직적으로 해석하여 그리스도교를 탐구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이해시키려는 데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36년의 제1판 강요는 라틴어로 되어 있어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읽혀졌다. 그러나 칼뱅은 1539년에 제 2판 『기독교 강요』 서문에서 이러한 목적을 수정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sup>97)</sup> 그는 이제는 지식인들에게 개혁과 교리를 간명하게 해석해 주는데 관심이 없고 성경을 교의학적으로 소개하는 데 더욱 뜻을 두게 되었던 것이다. 칼뱅의 안중에는 일반 대중보다는 신학도 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두고 있었던 것이다. 멜랑히톤이 1521년 *Loci Communes*를 출판할 때와 마찬가지로, 칼뱅은 지금 일종의 교의학 개론을 저술하여 신학교육의 필요성에 대비함으로 신학도들의 지침서로 삼고자 하였던 것이다.

둘째는 변호의 목적에서였다. 1535년 초, 프랑스를 피로 물들였던 박해, 칼뱅이 시편 주석 서문에서 명백히 말한 대로, 이 박해는 재세례파와 선동자들에게만 가해졌다고 하여 박해의 정당성을 피하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칼뱅은 이 책을 변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했던 것이다. 칼뱅은 복음주의자들의 죽음이 우리 주님 보시기에 매우 귀중한 것임을 밝히려 하였다. 칼뱅은 이미 생명을 건 그 영웅적인 신앙을 가지고, 그리고 인간의 전통으로 말미암아 그 영향력이 상실되고 박약해진 그리스도의 순수한 복음을 위한 불붙는 정열을 가지고 이 책을 썼던 것이다. 그리고 칼뱅은 여기서 교의와 윤리를

---

96) 신복윤, 『칼빈의 신학사상』 (서울: 성광문화사, 1993), 69-70쪽.

97) François. Wendel, Mairret, Philip역, *Calvin : The Origins and Development of his Religious Thought.* ( Durham : Labyrinth , 1963), 146.; 신복윤, 『칼빈의 신학사상』, 70쪽에서 재인용.

묶어 유기적 조화를 이루어 놓았다.<sup>98)</sup>

역사적으로 볼 때, 이 두 가지가 서로 다르면서도 동시적인 목적으로 동등하게 유용하였다. 그러나 신학적인 측면에서 보아 전자가 후자에 비해 훨씬 더 중요하다 하겠다.

### C. 『기독교 강요』의 구조 속에 나타난 교회론의 위치

먼저 칼뱅의 기독교강요(1559년판)의 전체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한다.

『기독교 강요』 1559년 최종판의 경우 1. 창조주 하나님, 2. 구속주 하나님, 3. 성령, 4. 교회와 국가의 구조로 되어있다. 더 세분화 해보면 이리하다. 1권과 2권에서 칼뱅은 “창조자”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속자” 하나님에 대한 “이중지식”을 다루고 있다. 그런데 창조자 하나님께서 구속자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목적이 아담 안에서 전적으로 부패하게 된 인간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영원한 복락을 주시기 위함이다.<sup>99)</sup>

3권의 내용은 그 제목에 잘 나타나 있다. 제 3권의 제목은 세부분으로 된다. 첫째,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방법”(the way in which we receive the grace of Christ). 둘째, “이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유익”(what benefits comes to us from it). 셋째,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뒤따르나”(what effects follow)이다.

칼뱅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방법”과 “그 유익”에 대하여 제 3권

---

98) Philip Schaff,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Grand Rapids: Eerdmans, 1969), vol.VIII. 330. 신복윤, 『칼빈의 신학사상』, 70쪽에서 재인용.

99) 한철하, “칼빈신학의 구원론적 이해와 복음사역의 중요성”, 『성경과 신학』 제 15권(서울: 한국복음주의 신학회 논문집, 1994), 5-6쪽.

첫머리에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다음의 문제를 논하여야 하겠다. 아버지께서 그의 독생자에게 부여하신 저 모든 유익(benefits, bona)을 우리가 어떻게 받는가의 문제다 ..... 첫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밖에 머물러 계신 한 그가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또 행하신 모든 것이 우리에게 아무 소용도 없고 무가치하게 남아있을 뿐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그가 아버지로부터 받으신 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는 그가 우리 것이 되고 우리 안에 거하셔야 한다(he had to become ours and to dwell within us). 그러므로 그는 “우리의 머리”(엡4:15)라고 불리우셨고, 또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롬8:29)이라 불리우셨다. 또한 우리 편에서는 우리가 “그에게 접붙임이 되었다.”(롬11:17)고도 하였고 또는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갈3:27)고도 하였다. 말하자면 위에서 말한 대로 우리가 성장하여 그와 함께 한 몸으로 되기까지는(until we grow into one body with him) 그가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이 우리에게서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얻는 것이 사실이다(it is true that we obtain this by faith). 그러나 복을 통하여 주신바 된 그리스도와의 교통을 모두가 다 꼭 같이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볼 때 우리는 더 높이 올라가서 성령의 숨은 역사에 대해서 조사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the secret energy of the Spirit). 우리가 다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유익을 즐길 수 있게 되는 것(we come to enjoy Christ and all his benefits)은 성령의 숨은 역사를 통해서 얻게 된다.<sup>100)</sup>

갈방의 이 짧은 글 속에 기독교의 전체계의 핵심부분을 다 망라하여 요약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sup>101)</sup> 이를 요약하면 하나님께서는 구원과 그 모든 유익을<sup>102)</sup>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기로 계획하셨는데, 그 모든 것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되는 것이다.

---

100) Inst III. i. 1.

101) 한철하, “칼빈신학의 구원론적 이해와 복음사역의 중요성”, 『성경과 신학』 제15권, 9-7쪽.

102) 위의 책, 8-9쪽, “구원과 구원받은 우리가 누리는 현세와 내세의 모든 복락”이라함.

또한 갈뱅은 결과(effects)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회개와 죄사함(새로운 삶과 거저 주시는 화해)으로 요약하고 있다.

3권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그의 독생자에게 부여해 주셨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회개함”을 얻어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화목함을 얻고 한편으로는 “중생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을 말한다.<sup>103)</sup>

이상과 같이 기독교강요의 내용을 살펴보면, 구원론적 성격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갈뱅의 구원론에서 “그리스도와 연합과 교통”이 중심적인 사상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과 영원한 복락을 주시기를 원하지만,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는 한 그것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갈뱅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개념이 그의 구원론의 기초를 이룬다.<sup>104)</sup>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믿음으로 우리에게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 칭의와 성화를 맺게 된다. “그러므로 단지 칭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성화를 위해서도 그리스도를 신실히 붙잡도록 해야 한다. 이는 그를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목적이기 때문이다.<sup>105)</sup> 이와 같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구원론의 기초가 되며, 칭의와 성화의 한 뿌리가 된다.

그러면 이제 교회론을 취급하고 있는 제 4권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살펴봐야겠다. 우선 4권의 제목을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베푸기 위한 외적 수단 또는 외적 보조자”(The external means or aims by which God

---

103) 위의 책, 9-10쪽.

104) 원종진, 『칼빈과 청교도 영성』(서울: 하나, 1994), 29쪽.

105) 존 칼빈, 『칼빈성경주석』(서울: 성서교재간행사, 1990), 롬8:13.

*invites us Into the society of Christ and holds us therein*)이다. 이를 볼 때, 교회론인 4권은 3권과 분리하여 볼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칼뱅은 교회론을 다루는 4권을 “전편에서 설명한바와 같이…”로 시작하고 있다.<sup>106)</sup> 이는 4권 교회론이 3권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기로 하셨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 구원과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 있다(3권의 내용). 그런데 우리는 무지하고 나태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믿음을 넣고 그것을 증대시키고 그 목표에 까지 전진케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외적 보조자들(outward helps)을 필요로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합함을 대비하시어 이와 같은 도움까지도 더하여 주셨는데, 이는 말씀과 성례라는 외적 수단과 목사와 교사(pastor et doctor)라는 외적 보조자이다. 이 보배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간직해 두셨다.(4권의 내용)

---

106) Inst IV. i. 1.

## IV. 『기독교 강요』에 나타난 교회론의 본질

### A. 신자들의 어머니로서의 교회

칼뱅은 교회의 본질을 언급하면서 교회를 ‘신자들의 어머니’라고 불렀다. 칼뱅의 교회에 대한 이러한 사상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사람에게는 교회가 어머니가 되어야한다.”<sup>107)</sup>고 한 말에서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 그런데 교회에 대한 그런 비유는 칼뱅 자신이 고안해낸 고유한 것이 아니라 이미 초대 교부였던 키프리안과 어거스틴의 교회에 대한 비유의 전통 속에서 발견되어 진다. 키프리안은 “당신이 교회를 당신의 어머니로 가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당신의 아버지로 가질 수 없다.”<sup>108)</sup>고 말했다. 어거스틴은 “우리는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의 교회를 사랑합니다. 전자를 아버지로서, 후자를 어머니로서.”<sup>109)</sup>라고 했다.

칼뱅은 어머니라는 비유를 통해 교회는 다음과 같은 역할과 기능을 가진다고 하였다.

그러면 나는 먼저 교회를 논하고자 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의 품속으로 자녀들을 모으시기를 기뻐하셨는데 이는 그들이 유아와 어린아이일 동안 교회의 도움과 봉사로 양육 받을 뿐 아니라 어머니와 같은 교회의 보호와 지도를 받아 성인이 되고 드디어는 믿음의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시려는 것이다.<sup>110)</sup>

---

107) Inst IV. i. 1.

108) Cyprian, *Unity of Catholic Church*, iv(LCC, V, 127-28, 이양호, 『칼빈: 생애와 사상』(천안: 한국신학연구소, 1997), 174쪽에서 재인용.

109) Augustinus, *Ps. LXXXVIII. ii. 14, Corpus Christiaorum Series Latina*(Tournhout: Typographi Brepols, 1956), Vol. XXXIX, 1244, 1. 33-35, 이양호, 『칼빈: 생애와 사상』, 174쪽에서 재인용.

이는 이 어머니가 우리를 잉태하고 낳으며 젖을 먹여 기르고 우리가 이 육신을 벗고 천사같이 될 때까지(마22:30) 보호 지도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생명으로 들어갈 길이 없기 때문이다.<sup>111)</sup>

이처럼 갈뱅에게 있어서 교회는 신자들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끼칠 정도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특별히 신자들의 교육과 양육의 측면에서 그러하다. 그래서 갈뱅은 이 어머니인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한다.

연약한 우리는 일평생 교회에서 배우는 자로 지내는 동안 이 학교에서 떠나는 허락을 받을 수 없다. 그 뿐만 아니라 교회의 품을 떠나서는 죄의 용서나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이것은 이사야(사37:32)와 요엘(욘2:32)이 말한 것과 같다. ... 따라서 교회를 떠나는 것은 언제든지 비참한 결과를 초래한다.<sup>112)</sup>

교회를 떠나는 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이다.<sup>113)</sup>

갈뱅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회를 어머니라 칭하기를 원했다. 또한 갈뱅에게 있어서 교회는 우리가 일생동안 다녀야 할 학교이기도 하다. 더 나아가서 갈뱅은 어머니로서의 교회의 중요성을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함으로써 강조하고 있다. 즉 교회의 품 밖에서는 죄의 용서를 기대할 수 없으며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치명적인 일이다.<sup>114)</sup>

---

110) Inst IV. i. 1.

111) Inst IV. i. 4.

112) Inst IV. i. 4.

113) Inst IV. i. 10.

114) 신복윤, 『칼빈의 신학사상』, 203쪽.

그런데 여기에서 칼뱅이 교회를 떠나서, 다시 말해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한 것은 교회 자체가 구원의 능력을 소유했다는 말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말씀과 성례전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수단인 교회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말씀과 성령의 내적 역사가 일어나는 한에 있어서 교회는 구원의 기관인 것이다.<sup>115)</sup>

“신자들의 어머니로서의 교회”를 말하는 칼뱅에 대하여 오토 베버는 교회를 하나의 조직적인 기구로 이해한다.<sup>116)</sup> 그리고 20세기 개신교 신학의 교부라고 알려져 있는 칼 바르트도 교회의 본질을 제도나 조직이 아니고 말씀의 사건이라고 정의하면서 이 말씀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제도적 교회는 우상숭배의 단체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면서 교회의 제도성보다 교회의 사건성을 중시했다.<sup>117)</sup>

## B. 가시적 교회와 불가시적 교회

칼뱅이 약관 26세에 탈고한 『기독교 강요』 초판에서는 가시적 교회에 대한 관심이 적었다. 처음에 칼뱅이 가시적 교회보다 불가시적 교회를 더 중요시한 까닭은 중세 교회가 가시적인 면에 치중하여 교회의 본연의 모습을 상실한데 기인하며 또한 로마 가톨릭 교회가 가시적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지상형 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sup>118)</sup>

여기에서 칼뱅이 교회를 불가시적 교회로 규정한 배경을 좀더 구체적

---

115) 이형기, 『종교개혁신학사상』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2), 361쪽.

116) O. Weber, 김영재 역, 『칼빈의 교회관』, 55-56쪽.

117) 김명용, 『열린 신학 바른 교회』 (서울: 장로회신학대학출판부, 1997), 18쪽.

118) 이형기, 『종교개혁신학사상』, 452쪽.

으로 살펴본다면 당시의 로마 가톨릭 교회는 그것이 지니고 있는 성직 서열제, 교부의 가르침, 사도적 전통, 화려한 건물 등을 자랑하고 그것들을 교회의 주요한 특징으로 내세웠던 교회였다. 로마 교회의 주장에 따르면 성서도 역시 사도적 전통에 속한다. 말하자면 ‘교회’라고 할 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교회를 생각하게 되었다. 이에 반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을 구호로 삼은 종교개혁자들은 성서의 말씀을 판단의 시금석으로 삼았다. 그들은 어떤 전통이나 교부의 가르침도 성서의 기준에 재어 보아야 한다고 믿었고 교부, 전통을 절대적인 권위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교부나 전통이 교회의 본질일 수 없다. 즉 교회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전통에 의해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교회가 될 따름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외적인 표지에 의하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하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는 역사 이래로 항상 있어 왔다는 것이 갈뱅의 지론이다. 그리고 종교 개혁자들은 바로 그런 보이지 않는 교회의 전통을 이어 받으려 한다는 것을 시사하였다.<sup>119)</sup>

이렇게 갈뱅은 초기에는 로마 가톨릭의 교회개념을 비판하면서 교회라는 이 세상의 실체는 외형적인 모습이 없더라도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후에 슈트라스부르크의 개혁자 부처(Bucer)는 여러 가지 면에서 갈뱅에게 영향을 주었다. 부처(Bucer)는 갈뱅에게 보이는 공동체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게 하였다. 그래서 갈뱅은 1539년 『기독교강요』 제2판에서 보이는 교회의 개념을 발전시켰고, 1543년의 『기독교강요』 제3판에서는 부처의 이와 같은 사상적 영향이 더욱 두드러지게 되었다.<sup>120)</sup> 이처럼

119) 황정욱, “교회론”, 한국칼빈학회 엮음, 『칼빈신학해설』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358-59쪽.

120) François. Wendel, Mairet, Philip역, *Calvin : The Origins and Development of His Religious Thought* (Durham : Labyrinth , 1963), 김재성 역, 『칼빈 그의 신학사상의 근원과 발전』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2), 161쪽.

칼뱅은 슈트라스부르크의 개혁자 부처의 영향으로 인해 자신의 교회론에 가시적 교회라는 개념을 도입하게 되었다.

칼뱅은 이미 성경에서 교회를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서 자신의 주장이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있음을 역설하였다. 칼뱅이 주장하는 교회의 두 가지 의미가 바로 가시적 교회와 불가시적 교회, 즉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이다.

우리는 성경에는 두 가지 교회가 있다고 말했다. 성경에서 “교회”라고 하는 말은 어떤 때에는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이 교회에는 양자로 삼으시는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과 성령의 성화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진정한 지체가 된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의미의 교회는 현재 지상에 살아 있는 성도들 뿐 만 아니라 천지창조 이후 지금까지 선택받은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그러나 “교회”라는 이름은 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경배한다고 고백하는 세계 각지에 산재한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때가 많다. 우리는 세례에 의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얻게 되며, 성만찬에 참가함으로써 진정한 교리와 사랑에 의한 우리의 연합을 증거하고, 주의 말씀 안에서 일치하며,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직을 보호한다.<sup>121)</sup>

그러므로 앞서 말한 교회는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눈에만 보인다고 믿어야 한다. 그와 같이 우리는 나중 말한 것, 즉 사람들과 관련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중히 여기며 그 교회와의 교통을 계속해야 한다.<sup>122)</sup>

불가시적인 교회란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눈에만 보이는 교회이다. 한편 가시적 교회는 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고백하는 이 지상 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칼뱅이 이처럼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를 말한 것은 두 개의 별개의 교회가 있음을 의미한 것

---

121) Inst IV. i. 7.

122) Inst IV. i. 7.

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한 교회에 두 면이 있다는 것을 말한 것뿐이었다.<sup>123)</sup>

바로 여기에 놓쳐서는 안 될 칼뱅의 사상의 변화의 모습이 등장한다. 그것은 칼뱅에게 있어서 가시적 교회의 개념이 불가시적 교회의 개념보다 늦게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시적 교회를 더 “중히 여기면서 그 교회와의 교통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sup>124)</sup>는 사실이다. 이것은 칼뱅에게 있어서 가시적 교회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음을 직접적으로 반영해주는 명확한 증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양자 사이의 관계는 어떤 식으로 정의 내릴 수 있을 것인가? 워커(G. S. M. Walker)는 칼뱅의 사상에 있어서 가시적 교회와 불가시적 교회의 관계를 “한 교회의 두 면은 중심이 밖에 있지만 중복되는 두 개의 원으로 구별 된다.”<sup>125)</sup>고 말한다. 물론 가시적 교회에 속한 전체 구성원들과 불가시적 교회에 속한 전체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는 중심이 다르지만 중복되어 있는 두개의 원으로 묘사될 수 있겠지만, 가시적 교회 안에 선택된 자들로만 이루어진 불가시적 교회가 참된 교회를 형성하고 있다고 볼 때 그것은 하나의 중심을 갖는 두 개의 동심원적 관계로 묘사될 수 있다. 칼뱅은 가시적인교회 안에 하나님만이 아는 참된 신자들로 이루어진 불가시적 교회가 내재해 있는 것으로 여겼다.<sup>126)</sup>

여기에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역사적 현실로서 가시적 교회 안에는 이름과 겉모습으로만 그리스도인인 많은 위선자들이 섞여 있다는

---

123) 신복윤, 『칼빈의 신학사상』, 205쪽.

124) Inst IV. i. 7.

125) G. S. M. Walker, Calvin and the Church (Scottish Journal of Theology, Vol. XVI, 1963), 379, 이양호, 『칼빈: 생애와 사상』, 177쪽에서 재인용.

126) 이양호, 『칼빈: 생애와 사상』, 177쪽.

점이다. 그러나 갈뱅은 한계성을 가진 인간인 우리가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누가 위선자인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누가 진짜이고 누가 가짜인지를 판단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명확히 해야 할 점은 단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아는 것은 하나님만이 가지신 특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뿐이다.<sup>127)</sup> 또한 우리는 우리의 일상 경험으로 보더라도 하나님의 비밀한 판단은 우리의 이해력이 도저히 미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sup>128)</sup> 한 마디로 말해서 불가시적 교회에 속한 구성원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하나님만의 권한이자 하나님의 신비에 속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시적 교회에서 부딪치는 많은 사람들, 즉 알곡과 쭉정이를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그들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간주하고 모두 동일하게 대해야 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 갈뱅은 우리는 단지 믿음의 고백과 삶의 모범과 성례에 참여함으로써 우리와 더불어 같은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들을 교회의 회원으로 인정하게 되는 사랑의 판단을 통해서만 주님께 속한 자녀들을 분별할 수 있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다.<sup>129)</sup> 이런 갈뱅의 진술 속에서 우리는 갈뱅의 교회의 분열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교회의 분열을 방지하기 위한 의도가 이미 어느 정도 깔려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 우리를 불가시적 교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하게 하는 사랑의 판단을 위한 세 가지 요소, 즉 믿음의 고백과 삶의 모범과 성례에의 참여 가운데 첫 번째로 언급된 ‘믿음의 고백이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갈뱅이 말하는 믿음,

---

127) Inst IV. i. 8.

128) Inst IV. i. 8.

129) Inst IV. i. 8.

즉 우리가 불가시적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음을 알게 하는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을 말 하는가?’ 라고 하는 문제이다.

칼뱅은 『기독교강요』 제3권에서 믿음의 본질에 대해 이렇게 정의했다. “믿음은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또 확실하게 아는 지식이며, 이 지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신 약속의 신실성을 근거로 삼은 것이며,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지성에 계시되며 우리의 마음에 인친 바가 된다.”<sup>130)</sup>

여기에 분명히 나타나 있듯이 칼뱅이 말하는 믿음이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주어진 약속에 기초한다는 것, 또한 그것은 성령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것 등을 믿음의 본질적인 면으로 가진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칼뱅이 말하는 지식이 단지 아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칼뱅의 믿음은 그저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서서 그 지식이 우리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그 지식에 우리의 삶을 결게 하며 그 지식이 우리의 삶의 실천으로 옮겨지게 만드는 지식임을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이다. 칼뱅의 믿음은 실천으로서의 믿음이며 삶으로서의 믿음이다. 그의 이러한 믿음관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화하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알 수 없다. 그러므로 믿음을 경건한 성향에서 분리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sup>131)</sup> 라는 진술 속에 잘 드러나 있다.

여기에 더해서 또 다른 질문이 하나 생겨난다. ‘과연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개념은 칼뱅의 독창적인 사교의 결과물인가? 또한 이런 구분을 통해서 칼뱅이 의도한 것은 과연 무엇이였을까?’ 라는 질문들이다.

칼뱅은 보이는 교회(가시적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불가시적 교회)

---

130) Inst III. ii. 7.

131) Inst III. ii. 8.

라는 견해, 즉 어거스틴의 견해를 사용하고 있다. 어거스틴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보이지 않는 그러면서도 진실된 또는 거룩한 교회는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있던 선택된 고정된 수의 성도들을 포함한다는 것과, 이 보이지 않는 교회는 선택받지 못한 죄인들까지도 포함하는 보이는 교회와 뒤섞여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보이지 않는 교회는 영적인 존재 또는 성도의 초역사적인 영역이라는 형이상학적인 지위를 갖게 되었다.

칼뱅이 이런 어거스틴의 사상을 취하는 것은 두 교회 개념을 발전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경험상의 교회에 보이지 않는 교회 개념을 대조하기 위함이다. 여기서 그의 의도는 경건에 있다. 즉, 하나님이 실제로 교회의 주(主)시며, 따라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는 그 경험적 실재로서 그리스도의 몸 또는 선택 자들의 무리와 단순하게 동일시할 수 없음을 뚜렷하게 보이려는 데 있다.<sup>132)</sup>

### C.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칼뱅은 『기독교 강요』 제4권에서 로마 교회의 교황에 대한 강력한 비판을 여러 장 속에서 드러내고 있다. 칼뱅은 로마 교황제도 아래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거짓되고 사악한 조직이 교회를 지배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로마교회의 교황제도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은 세계가 한 군주의 지배 하에 포섭되는 것이 유익하다는 전연 어리석은 가톨릭교회의 생각을 옳다고 가정하더라도 교회조직에서도 같은 일이 있어야

---

132) Philip. C. Holtrop, 박희석, 이길상 역, 『기독교강요연구헨드북』(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7), 326쪽.

한다는 것을 나는 인정하지 않겠다. 교회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머리가 되시며, 우리는 모두 그의 지배 하에서 그가 제정하신 질서와 조직에 따라 서로 연합된다. 교회에 머리가 없을 수 없다는 구실로 세계 교회 위에 한 사람을 앉히려고 하는 그들은 그리스도를 현저히 모욕한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이시기 때문이다.<sup>133)</sup>

갈뱅은 여기에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지, 결코 사람이나 교황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이렇게 갈뱅은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간주하는 교회의 본질론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진정한 머리임을 주장하는 그의 언급들은 곳곳에서 발견되어진다.

교회를 보편적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누어지지 않는 한(고전1:13 참조)-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교회도 둘이나 셋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모든 선택된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었으므로(엡1:22-23 참조) 한 머리를 의존하며 서로가 한 몸이 되고 한 몸에 달린 지체들 같이(롬 12:5, 고전10:17, 12:12, 27) 서로 단단히 결합된다(엡4:16참조). 그들이 참으로 하나가 되는 것은 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또 같은 하나님의 영 안에서 함께 살기 때문이다. 그들의 부르심은 영생을 다같이 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한 하나님과 한 그리스도께 참여시키기 위함이다(엡5:30).<sup>134)</sup>

위 인용문들에서도 잘 나타나 있듯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라는 개념은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에 둬으로써 교회의 일치성과 하나 됨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교회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갈뱅은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라는 사상을 통해 교회의 하나 됨을 강조했다.

---

133) Inst IV. vi. 9.

134) Inst IV. i. 2.

니젤(W. Niesel)은 그의 책 『갈뱅의 신학』 (*Die Theologie Calvines*)에서 “성도들의 연합이 완성되며 그리스도의 몸이 이루어지며, 머리가 되시는 그에게 있어서 우리는 모든 면에서 성장하며 따라서 피차 일치에 이르게 된다.”<sup>135)</sup> 따라서 “한 개인이나 모든 개인이 합해진 전체도 교회를 마음대로 취급할 수 없다. 다만 그리스도만이 이것을 취급한다. 그에 대해서 우리는 모두 무익한 종에 불과하다.”<sup>136)</sup> 라고 하면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주라는 사실이 갈뱅에게서 강하게 나타남을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갈뱅은 이런 원칙은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즉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것에도 해당됨을 말한다.

신경의 이 조항(성도가 서로 교통함)은 또한 어느 정도 외면적인 교회에 적용된다. 즉 우리는 각각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과 형제적 일치를 유지하며 교회가 당연히 가져야 할 권위를 교회에 부여하고 두말 할 나위 없이 양떼의 일원으로서 행동해야 한다. 따라서 “성도가 서로 교통 한다.”고 첨가하였다. 고대인들은 대개 이 구절을 빼놓았지만 그것은 옳지 않은데, 그 구절은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잘 표현해 주기 때문이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무엇이든 서로 나눈다는 원칙 하에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소집되었다고 하는 것이 이 구절의 뜻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은혜의 다양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성령의 은사는 여러 가지로 상이하게 분배된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 하나님께서는 모든 신자의 아버지시며 그리스도께서는 그들 모든 신자들의 머리시라는 것을 참으로 확신 한다면 그들은 형제어로 연합되지 않을 수 없고 또 그들이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지 않을 수도 없다.<sup>137)</sup>

---

135) O. S. 5, 44, 25, W. Niesel, 이종성 역, 『칼빈의 신학』, 192쪽에서 재인용.(=O.S.=Johannis Calvinus Opera Selecta III-V, cf. Ioannis Calvinus Opera quae supersunt omni=C.O. ; Corpus Reformatorum=C.R.)

136) C. R. 50, 235(갈4:19), W. Niesel, 이종성 역, 『칼빈의 신학』, 197쪽에서 재인용.(위의 각주에서 설명한대로 C. R.=Corpus Reformatorum)

137) Inst IV. i. 3.

가장 높은 사람으로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머리(그리스도)를 양모할 때 거기서 이루어지는 신앙의 일치는 참으로 아름다울 것이다.<sup>138)</sup>

이처럼 우리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라고 부를 때 그 교회는 또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는 교회임을 동시에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칼뱅이 이런 주장을 피력한 까닭은 로마 가톨릭을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칼뱅은 단지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가 되실 수 있지 어떠한 사람이나 제도, 로마 가톨릭의 교황도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개념은 교회의 일치성을 말하는 동시에 다양성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몸은 하나이지만 여러 가지 지체들로 구성되며 각 지체들은 그 특징과 기능에 있어서 모두 다르고, 그들이 받은 은사 또한 다르다.<sup>139)</sup> 그러므로 칼뱅은 교회의 머리되시는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은사와 은혜는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용되어서는 안 되고 교회공동체 속에서 서로를 섬기고 서로에게 봉사하고, 서로를 세워주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주신 것임을 역설하고 있다.

---

138) Inst IV. i. 5.

139) 전진은, “칼빈과 제세례파의 교회론 비교”,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1997), 26쪽.

## V. 『기독교 강요』에 나타난 교회의 기능

### A. 교회의 표지

“한 단체로서 말씀을 선포하고 공경하며 성례를 집행하고 있다면 물론 그것은 교회라는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런 일들에게는 결실이 있다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sup>140)</sup>고 하는 갈뱅의 말에 의하면 그에게 있어서 역사적 현실 속의 참 교회가 참된 교회임을 드러내주는 명백한 증거, 즉 참된 교회의 표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성례전이 행해지는 것이다.

갈뱅은 참 교회를 식별할 수 있는 징표를 말씀과 성례라고 믿었다. 갈뱅의 말을 들어 보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전파하며 또 듣고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대로 성례를 지킬 때에 거기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sup>141)</sup> 갈뱅의 두 표지 주장은 두 적에 대한 대응으로 생겼다. 재세례파에 대하여 교회의 두 표지가 있는 한, 교회로부터 분리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로마 가톨릭에 대하여는 교회의 두 표지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고 말했다.

여기서 갈뱅은 말씀과 성례 외에 권징을 제 3의 표지로 덧붙이고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가져 볼 수 있다. 여기에 대해 니젤은 갈뱅이 권징을 참 교회의 표지로서가 아니라, 참 신자, 곧 개인에 대한 판단으로서 언급한다고 말한다.<sup>142)</sup>

방델에 의하면 권징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표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즉 권징이 교회를 분별하는 본질적인 표지가 아니라 교

---

140) Inst IV. i. 9.

141) Inst IV. i. 9.

142) Wilhelm Niesel, 이종성 역, 『칼빈의 신학』, 198쪽.

회를 보호, 성화시키는 수단으로 갈뱅이 이해했다고 한다.<sup>143)</sup>

베버 역시 권징이 말씀과 성례에 속한다는 말은 옳으나 교회의 권징이 독자적인 징표라거나 인간의 독자적인 행위라고 한다면 틀린 말이라고 한다.<sup>144)</sup>

카이빠도 말씀과 성례만이 참 교회의 표지라고 했다. 그 이유는 첫째,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서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행하시는 통로는 말씀과 성례전을 통해서이고, 둘째, 이것만이 다른 단체에는 없는 교회만의 특성이며, 셋째, 이 두 가지가 교회의 소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sup>145)</sup>

따라서 갈뱅의 참교회의 표지는 말씀과 성례로 보고 권징은 교회의 질서와 관련해서 살펴볼 것이다.

## 1. 말씀

종교개혁의 신앙은 시종일관 하나님 말씀의 신학이었다. 하나님 중심적 사상이 성경 중심적 사상과 직결된 것이다. 갈뱅은 주장하기를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안내자요 교사이며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생활의 법칙이라고 기록했다. 갈뱅의 교회론도 전적 말씀에 의하여 결정된 것이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없이는 결코 살아있을 수도, 존재할 수도, 열매를 맺을 수도 없다.” 갈뱅에게 있어서 말씀은 교회의 존재를 위해 전적인 결정 요소였으며, 말씀은 교회를 창조하고 세우며 교회의 모든 다양한

---

143) François. Wendel, 한국칼빈주의연구원 편역, 『칼빈의 신학 연구』, 301쪽.

144) O. Weber, 김영재 역, 『칼빈의 교회관』, 61쪽.

145) Abraham Kuyper, *Lectures on Calvinism* (Grand Rapids: Erdmans, 1931), 박영남 역, 『칼빈주의』 (서울: 세종문화사, 1971), 46쪽.

사역들에 생명을 공급한다.<sup>146)</sup> 오토 베버 역시 칼뱅의 교회론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은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설교라고 말한다.<sup>147)</sup>

칼뱅은 하나님은 인간에게 말씀하실 때 인간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믿었다.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공개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 교리를 전파하라고 목자들에게 명령하셨다.<sup>148)</sup> 하나님께서는 아무 도움이나 연장이 없이도 사업을 친히 하시거나 천사들을 시켜서 하실 수도 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을 수단으로 삼아 일하시는 편을 택하신다.<sup>149)</sup>

칼뱅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한다. 첫째,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의 사신(使臣)으로 사용한 것은 우리에게 대한 존중을 선포하신 것이다. 둘째, 우리 인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듣는 자들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직접 말씀한다면 지체 없이 받아들일 것이다. 그러나 흠에서 나온 보잘것 없는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할 때 그가 우리보다 나은 점이 없을지라도 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여겨 배우는 태도를 보인다면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경건과 순종을 가장 잘 증명하게 된다. 셋째, 우리가 가르치고 배우는 이 유대 속에서 서로 사랑을 키울 수가 있다.<sup>150)</sup>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인간들에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사람들을 세워 그 말씀을 가르치게 하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그들의 입을 자기의 입으로 간주되고 그들의 입술들이 자기의 입술로 간주되기를 원한

---

146) R. Sider, *Kalstadt: The Development of his thought 1517-1521*(Leiden, 1974), 135, Paul. D. L. Avis, 이기문 역, 『종교개혁자들의 교회관』, 105쪽에서 재인용.

147) O. Weber, 김영재 역, 『칼빈의 교회관』, 60쪽.

148) Inst IV. i. 5.

149) Inst IV. iii. 1.

150) Inst IV. iii. 1

다.”<sup>151)</sup> 따라서 설교를 하나님의 은총을 전달해 주는 도구로 본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나 설교가 그 효력을 발생하자면 성령의 내적 조명이 있어야 한다. 만약 설교에 성령의 역사라는 중심이 빠지면 순전히 인간의 말에 불과하다. “하나님이 사역자들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면 그들에게 아무 것도 남지 않는다.”<sup>152)</sup> 갈뱅에게 있어서 설교의 효과는 두 가지로 나타난다. “그 결과는 생명 아니면 죽음이다. 즉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이루고 악인에게는 정죄하는 효과가 있다.”<sup>153)</sup> “그 목소리가 영생의 수단이 되는 것이다.”<sup>154)</sup>

이처럼 설교사역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를 인식한 갈뱅은 성경을 판단하는 권세가 교회에 속하며 성경의 확실성이 교회의 찬동에 좌우된다는 로마 가톨릭 주장을 거짓된 주장으로 보게 한다. 교회의 교회다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 설교 되어질 때 비로소 나타난다. 그러기에 설교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말씀에 국한되어야 하며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만을 선포해야 한다.

## 2. 성례

### a. 성례의 본질

갈뱅은 교회가 교회되는 표지로서 말씀과 아울러 성례를 들고 있다.

---

151) Inst II. ii. 20

152) Comm. Isa. 11. 4., Paul. D. L. Avis, 이기문 역, 『종교개혁자들의 교회관』, 107쪽에서 재인용.(=Comm은 *(The)Calvin Commentary*, (칼빈) 『성서주석』에서 Comm으로만 표기한 것이다. 앞으로 갈뱅의 『성서주석』을 인용할 때, 약어로 Comm으로만 표기하겠다.)

153) Comm. 2 Cor. 215., 위의 책, 107쪽에서 재인용.

154) Comm. Hag. 1. 12., 위의 책, 107쪽에서 재인용.

성례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수단이며, 이것은 복음 선포와 관련되어 있다. 먼저 성례의 정의를 살펴보자.

성례는 우리의 약한 믿음을 받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그의 선하신 뜻의 약속을 우리의 양심에 인 치시는 외형적인 표이고, 우리 편에서는 그 표에 의해서 주와 주의 천사들과 사람들 앞에서 주께 대한 우리의 충성을 확인하는 것이다.<sup>155)</sup>

깔뱅은 어거스틴의 성례를 “거룩한 것의 가시적 표시” 혹은 “불가시적 은혜의 가시적 형태”라고 한 것을 인용하였다. 이러한 시각적, 감각적 표시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의 신앙이 항상 시험을 받으며 완전하지 못한 연약함에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진리는 그 자체만으로 확고부동하며, 자체 이외에서 더 훌륭한 확인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연약해서, 각종 수단을 사용하여 사방으로 괴어 주고 받쳐 주지 않으면 떨리고 흔들리며 비틀거리다가 결국은 무너지고 만다.<sup>156)</sup>

이처럼 성례는 우리의 신앙을 유지케 하고 증강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깔뱅은 어거스틴을 따라서 성례는 “보이는 말씀”이라고 하고, “영적인 복의 거울”이라고 한다. 요컨대 성례는 우리의 신앙을 돕는 것이다.

성례의 제정자는 하나님이다. 깔뱅이 로마 가톨릭 교회의 7성례를 비판하고 세례와 성찬 두 가지만을 성례로 주장하는 것도 이 두 가지를 주님이 친히 제정하셨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성례 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성례는 없으므로 신자의 교회는 다른 것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 새로운 성례를

---

155) Inst IV. xiv. 1.

156) Inst IV. xiv. 3.

제정하는 것은 사람이 선택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sup>157)</sup>

칼뱅의 중심사상은 성례가 어떤 의미에서든지 인간이 이행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행위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행위는 인간의 응답을 요구하신다. 이 때 물론 하나님의 행하심이 인간의 응답보다 일차적이에요, 더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다. 말씀이 필연적으로 우리 신앙을 대상으로 하듯이 성례 역시 그러하다. 성례가 신앙을 낳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증거를 요구한다.<sup>158)</sup>

한편 성례는 반드시 선행하는 약속이 있으며 성례는 이 약속에 붙인 부록과 같다. 그래서 칼뱅은 성례를 문서에 찍힌 인장에 자주 비유하였다.<sup>159)</sup> 문서가 그냥 백지일 경우에 인장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으나 보통 문서일 경우 그것은 인장이 있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칼뱅은 로마서 4장 11절의 주석에서 아브라함의 할례가 의의 상속이라는 목적으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신뢰한 언약의 인장으로 설명하고 있다. 달리 말하면 성례는 말씀과 언약에 첨가된 것이어서 성례 그 자체로서는 아무런 효력을 갖지 않는다.<sup>160)</sup>

말씀이 없이는 성례는 한낱 병어리 극이다. 이것은 말씀이 없거나 알 아듣지 못하는 라틴말 예식서를 사용하는 로마 가톨릭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다.<sup>161)</sup> 그러나 그것이 믿는 자에게는 큰 의미가 있다. 믿는 자는 성례가 없어도 객관적인 사실로 존재하는 것을 성례를 통하여 주관적으로 확인한다. 이 점은 쾰빙글리와의 차이점이기도 하다.<sup>162)</sup>

---

157) Inst IV. xviii. 19.

158) O. Weber, 김영재 역, 『칼빈의 교회관』, 126쪽.

159) Inst IV. xiv. 5.

160) O. Weber, 김영재 역, 『칼빈의 교회관』, 127쪽.

161) Inst IV. vii. 39.

162) 쾰빙글리는 다른 아무 실체도 없이 단순히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

또한 깔뱅은 넓은 의미에서 구약에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성례들이 있다고 보았다. 즉 아담과 하와에게는 생명나무(창2:9), 노아에게는 무지개(창9:13-16), 아브라함에게는 연기 뿜는 가마솥에 나타난 횃불(창15:17), 기드온에게는 양털을 적신 이슬(삿6:37-38)등을 주셨다. 이것들은 그들의 약한 신앙을 북돋아 주고 굳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도 역시 성례였다.<sup>163)</sup> 그 외에도 구약에는 의식적인 성례가 있었다. 그것은 할례(창17:6), 결례(레1-10장), 희생제사 등이다.

깔뱅에 의하면 이러한 구약의 성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것이었는데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이 성례들은 폐지되었고, 지금 기독교가 사용하고 있는 세례와 성찬이 제정되었다고 한다.<sup>164)</sup> 따라서 이제 계속 해서 세례와 성찬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 b. 세례

깔뱅은 세례의 정의를 이렇게 말하고 있다.

세례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아 하나님의 한 자녀로 인정되기 위해서 교회라는 공동체에 가입되는 입문의 표징을 말한다. 세례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그 목적은 첫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에 도움이 되고, 둘째,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고백에 도움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sup>165)</sup>

깔뱅은 세례가 신앙에 주는 유익을 세 가지로 설명한다. 첫째, 세례는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음 받았다는 사실을 확증하는 표이다.<sup>166)</sup> 둘째, 세례는

---

이며, 기념이다. 따라서 그는 성례전을 통하여 무엇을 얻는 다는 것을 부인한다.

163) Inst IV. xiv. 18.

164) Inst IV. xiv. 23.

165) Inst IV. xv. 1.

166) Inst IV. xv. 3.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죽음과 부활의 표시이다(롬6:5).<sup>167)</sup> 셋째,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표이다.<sup>168)</sup>

한편 갈뱅에 의하면 세례는 사람들 앞에서 행하는 신앙고백이기도 한다.<sup>169)</sup> 세례라는 표지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되고 싶다는 소원을 공포하며 세례에 의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같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같은 종교를 믿는다는 것을 증거 한다.

세례의 효과에 대하여 갈뱅은 세례 그 자체로서는 아무런 힘이 없음을 강조한다. 물 자체에 깨끗하게 하며 중생하게 하며 새롭게 하는 힘이 있거나, 여기에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이 세례에서 은혜에 대한 지식과 확신을 받는다는 것이다.<sup>170)</sup>

세례는 일생에 단 한번 받는 것이며, 그 후에 지은 죄로 인하여 무효가 되어지지 않는다. 갈뱅은 이런 관점에서 로마 가톨릭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다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따라서 재세례파에서 다시 세례를 주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있다.<sup>171)</sup>

갈뱅은 세례에 있어서 신앙을 매우 강조한다. 로마 가톨릭이나 루터교는 세례 자체가 믿음의 기초가 된다. 그러나 갈뱅은 사도행전의 고넬료가 세례 받기 전에 이미 믿음을 가진 신자였음을 지적한다. 따라서 세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효력을 발생케 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는 다만 “하나의 징표”였다. 그러나 그것은 “효력을 발생하는 징표(signum efficiens)”이다.<sup>172)</sup> 여기서 우리는 갈뱅이 성례와 신앙 중 어느 하나만을 택하고 싶어 하지 않았음을

---

167) Inst IV. xv. 5.

168) Inst IV. xv. 6.

169) Inst IV. xv. 13.

170) Inst IV. xv. 2.

171) Inst IV. xv-xviii.

172) Inst IV. xv. 14.

엿볼 수 있다. 믿음이 없이는 세례가 아무 것도 아니다. 그러나 믿음은 세례를 하나의 징표로서 필요로 하며 양자는 서로 관련되어 있다.

칼뱅은 유아세례에 관하여 『기독교 강요』 제4권 16장 전장을 할애하고 있다. 재세례파는 세례에서 신앙을 강조한 나머지 유아세례를 부정하였다. 그러나 칼뱅은 유아세례를 하나님이 어린아이에게 주시는 선의의 약속으로 보았다.

칼뱅은 옛 계약 아래의 할례와 새 계약 아래의 세례와의 연속성을 말한다. 첫째, 할례와 세례는 다 용서와 영생을 약속한다. 둘째,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재생이다. 셋째, 그것들의 근거는 그리스도이다.<sup>173)</sup> 다만 구약의 할례와 신약의 세례가 다른 것은 외형적인 의식이 다를 뿐이다.<sup>174)</sup>

이처럼 할례와 세례가 연속성이 있다면 유아세례를 베푸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한다. 옛 계약보다 새 계약의 은총의 범위가 더 넓고 충만하다. 그렇다면 옛 계약에서 자녀들에게 할례를 베풀었는데, 새 계약에서 세례를 베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총이 축소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된다.<sup>175)</sup>

### c. 성찬

개신교의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다. 오토 베버는 칼뱅에게 있어서 성찬에 비길 만큼 중요한 것은 영원한 선택 교리뿐이라고 했다. 즉 성찬과 선택이 두 교리가 칼뱅의 신학의 중심이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말이다.<sup>176)</sup>

칼뱅은 성찬의 의미를 이렇게 말한다.

---

173) Inst IV. xvi. 3.

174) Inst IV. xvi. 4.

175) Inst IV. xvi. 6.

176) O. Weber, 김영재 역, 『칼빈의 교회관』, 122-53쪽.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자신의 가족으로 받아들이시고 종으로서가 아닌 아들로 여기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녀의 일을 걱정하시는 가장 훌륭한 아버지로서 우리를 평생 먹여 주신다. 또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 계속되는 후의를 우리가 확신할 수 있도록 담보물을 주셨다. 즉 독생자의 손을 거쳐 그의 교회에 한 성례-영적잔치-를 주시고 이 잔치에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생명을 주는 떡임을 확증하시며, 이 떡을 우리의 영혼이 먹음으로써 진정하고 복된 영생을 얻게 하신 것이다.<sup>177)</sup>

세례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중생한 삶을 확증한다면, 이 성찬은 계속해서 새로운 삶을 영위케 하는 것이다. 성찬은 떡과 포도즙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눈에 보이듯, 손으로 만져지듯 제시된다는 것이다. 떡과즙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대표하는 것으로 이것은 믿는 자의 영혼에 영적 음식과 영적 음료가 된다. 이것을 통하여 믿는 자는 양육 받고, 생기를 얻으며, 강건해지고, 기쁨이 충만해 진다.<sup>178)</sup> 떡과즙이 몸에 유익을 주듯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는 영적으로 영혼을 유익하게 한다. 이것은 하나의 유비관계(analogia)이다.<sup>179)</sup>

또 깔뽕은 성찬에 반드시 말씀이 빠져서는 안 됨을 강조하고 있다.

말씀이 없으면 성찬은 바로 집행될 수 없다. 우리가 성찬에서 받는 은혜는 모두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거나 고백을 연습하거나 의무에 대한 열의를 일으키거나 하는 이 모든 일을 위해서는 설교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교황 독재 하에서 일어나는 것같이 성찬을 말없는 행사로 만드는 것이 가장 불합리한 것이다.<sup>180)</sup>

---

177) Inst IV. xvii. 1.

178) Inst IV. xv. 3

179) 이형기, 『종교개혁신학사상』, 489쪽.

180) Inst IV. xvii. 3.

갈뻥은 성찬을 통하여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사귄에 들어간다고 한다. 즉 성찬의 특별한 결실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즉 우리와 함께 인자가 되심으로써 우리가 그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였고, 자신이 땅에 내려오심으로써 우리가 하늘로 올라갈 길을 준비하셨으며, 우리의 죽을 생명을 가지심으로써 우리에게 그의 영생을 주셨고, 우리의 무력함을 받으시고 그의 힘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셨으며, 우리의 빈곤을 받으시고 그의 풍부하심을 우리에게 넘겨주셨고, 또 우리를 억압하던 우리의 죄의 짐을 스스로 지시고 그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셨다.<sup>181)</sup>

성찬의 중심사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연합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이다. 갈뻥은 성령께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교통이 불가능하게 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가능케 하신다.<sup>182)</sup>

방델에 따르면 갈뻥의 성찬교리는 『기독교 강요』 초판에서는 주로 로마 가톨릭을 비판하면서, 루터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었으나, 점차로 이 문제에 관하여 개혁자들 간에 불일치가 증가하게 되었다.<sup>183)</sup>

로마 가톨릭 교회는 화체설을 말하며 미사에 있어서 표징과 몸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보았다. “이것이 내 몸이다.”, “이것이 내 피다.”라는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었다.

이에 대하여 루터는 ‘교회의 바벨론 포로’라는 논문에서 교회가 로마 교회에게 포로로 빼앗긴 것 세 가지를 찾아야 한다고 하며 로마 가톨릭 교회의 성찬론을 비판하고 있다. 첫째는 평신도에게 잔을 주지 않는 것이고 둘째는 화체설을 통해 빵과 포도주의 실체를 빼앗는 것과 셋째는 미사의 그릇된 희생개념이 그것이다.<sup>184)</sup>

---

181) Inst IV. xvii. 2.

182) 이형기, 『종교개혁신학사상』, 491쪽.

183) François. Wendel, 한국칼빈주의연구원 편역, 『칼빈의 신학 연구』, 330쪽.

루터는 그리스도의 희생의 유일성을 고집하며 그것의 어떠한 반복이나 보조 행위도 반대하였다. 루터는 편재하는 그리스도의 몸이 성찬을 통해 빵과 포도주와 함께 우리에게 분여되어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적에 참여하게 된다고 하는 공재설을 주장하였다. 루터에게 있어서 성찬은 편재하는 그리스도가 실제로 임하는 것이다.

쯔빙글리는 정반대로 기념설을 취하여 성찬은 단순한 표시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즉 성찬의 떡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희생의 단순한 기념의 표시이며, 그리스도의 구속의 행동을 회상할 뿐이라고 말한다.

갈뱅의 성찬교리는 이렇게 루터와 쯔빙글리파의 논쟁의 과정에서 발전되었다. 그는 양극단론, 즉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주장과 성례에서 경험하는 것을 단지 하나의 정신적인 것으로 축소하려는 주장을 피하려고 하였다.<sup>185)</sup> 갈뱅은 성찬의 징표의 실제적인 효능을 믿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하신다는 영적 임재설을 주장한다.

먼저 로마 가톨릭의 화체설에 대한 갈뱅의 비판을 요약하면 피조물인 떡이 그리스도의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성찬의 거룩함을 말하기 위하여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sup>186)</sup>

또 갈뱅이 루터의 공재설을 반대한 주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위엄과 섭리와 형언할 수 없고 볼 수 없는 은혜로서는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시지만 그의 육체는 지금 하늘에 계시며 편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sup>187)</sup> 그리스도의 몸의 편재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위협하는 것이 되어 우리의 구원의 터전이 되고 있는 그의 인성의 진리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그의 부활의 영광을

---

184) Luther's Works. vol. 36. 138-43, 박건택, 『개신교역사와 신학』 (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1998), 51쪽에서 재인용.

185) O. Weber, 김영재 역, 『칼빈의 교회관』, 137쪽.

186) Inst IV. xvii.13, 26-28.

187) Inst IV. xvii. 26.

말살하기 때문이다.

쯔빙글리에 대해서도 깔뱅은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는 분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공허한 상징을 준다고 감히 주장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반박하며, 하나님은 상징을 보여주시는 동시에 실체도 주시는 분으로 믿어야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면서 깔뱅은 성찬에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임재 하신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너무 높은 신비라서 이해하거나 말로 표현하기 보다는 느끼고 경험하는 편이 낫겠다고 고백하고 있다.

나는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 있어서 아무런 모호함을 볼 수 없다. 즉 우리는 참으로 그리고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는다. 또한 그리스도가 외적 상징만으로 아니라, 그의 영의 비밀한 역사로 우리에게 내려오시며, 그리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그에게 올라간다는데 동의하는 한 그는 본질적으로 우리의 양식이다.<sup>188)</sup>

깔뱅은 성찬을 위해서 자기를 먼저 살필 것을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바울은 각기 자기 자신을 살핀 다음에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셔야 한다고 명령한다. 내가 해석하는 바로는, 사도가 말하려는 뜻은 이것이다. 즉 사람은 각기 자기 속으로 내려가서 홀로 깊이 생각해야 한다. 자기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구원의 중심으로 믿고 의지하는가? 그 믿음을 입으로 고백하는가? 그리고 깨끗하고 거룩한 열심히 그리스도를 본 받고자 애쓰는가? 그리스도를 본 받아 형제들을 위해서 자기를 주며 함께 그리스도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자기를 나누어 줄 용의가 있는가? 자기가 그리스도의 지체로 인정되는 것과 같이 자기편에서도 모든 형제들을 지체로서 아끼고 보호하며 돕기를 원하는가? 이런 것들을 먼저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믿음과 사랑에

---

188) *Letter to buccer, 27th. pec. 1562. cd. 19. 603.* François. Wendel, 한국 칼빈주의연구원 편역, 『칼빈의 신학 연구』, 352쪽에서 재인용.

관한 의무들을 우리가 지금 완전히 행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목표로 정성껏 노력하며 향상시켜서 일단 출발한 우리의 믿음이 매일 자리 잡도록 하라는 것이다.<sup>189)</sup>

이처럼 깔뱅은 성찬 교리에서 성화의 측면을 강조하고 있었다. 깔뱅에 있어서 성찬이 이렇게 실재적이며 중요한 것이었기에 그는 성찬을 자주 집행할 것을 강하게 주장했다.

성찬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한 것을 보면, 현재의 통례와 같이 일년에 한 번, 그것도 형식적으로 받도록 성찬을 제정하신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오히려 그와는 반대로 모든 그리스도인이 자주 성찬을 받도록 제정하셨고, 자극을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수난을 자주 회상하고, 이런 회상에 의해서 믿음을 강하게 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드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선포하며, 또 자주 성찬을 믿음으로써 상호간에 사랑을 증진하고 서로 사랑을 증명하며,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서로 단결하는 데 있다.<sup>190)</sup>

깔뱅은 일년에 한 번만 성찬에 참여하면 된다는 관습은 누가 처음 시작했던 간에 분명히 마귀가 만든 것이라고 했다.<sup>191)</sup>

## B. 교회의 직분

깔뱅은 교회의 표지로서 말씀과 성례를 들었다. 즉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성례를 올바르게 집행할 때 그곳에 교회가 있다고 보았다. 그런데 말씀을 선포하고 성례를 올바르게 집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봉사를 통하여 하신다.

---

189) Inst IV. xvii. 40.

190) Inst IV. xvii. 44.

191) Inst IV. xvii. 46.

전통적인 개신교 역사에서 칼뱅만큼 교회의 직분에 큰 의미를 부여한 사람은 없다. 칼뱅은 교회를 이해함에 있어서 “신자들의 공동체”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제정하신 “기구(institution)”임을 강조한다.<sup>192)</sup> 칼뱅의 교회는 “직분을 중심한 교회”이다.<sup>193)</sup>

이러한 칼뱅의 입장이 구체화 된 것이 교회의 직분에 대한 그의 언급이다. 칼뱅은 교회의 직분을 목사, 교사, 장로, 집사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한다. 칼뱅은 주로 에베소서 4장 11절과 로마서 12장 7-8절에 근거하여 네 직분론을 추론하고 있다. 그러나 칼뱅이 초대교회의 직분을 맹목적으로 따르고 있지 않다는 것은 다음 말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대로 교회 정치를 주관하는 사람들을 바울은 첫째로 사도, 다음은 선지자, 셋째는 복음 전하는 자, 넷째는 목사, 끝으로 교사라고 부른다. 이 중에서 끝에 있는 둘만이 교회내의 평상직이요, 처음 셋은 주께서 그의 나라의 초창기에 세우셨고 필요에 따라 가끔 부활시키신다.<sup>194)</sup>

칼뱅은 여기서 영구적인 직분과 일시적인 직분을 구별한다. 이러한 구별은 한 개인에게 있어서 종신직과 임시직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영구적인 직분은 목사와 교사와 같이 교회 역사에 있어서 계속 존재하는 직분을 가리키고, 일시적인 직분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와 같이 처음 교회를 세울 때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세우신 직분으로 본다.<sup>195)</sup>

칼뱅은 직분을 유기적으로 이해했다. 따라서 교회의 직분은 서로가 견제를 받으면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직분은 일반적으로 보아서는 동일하

---

192) O. Weber, 김영재 역, 『칼빈의 교회관』, 33-39쪽.

193) 위의 책, 65쪽.

194) Inst IV. iii. 4.

195) Inst IV. iii. 4-5.

지 않지만 교회를 봉사한다는 입장에서는 동일하다. 즉 단일성 속에 다양성이  
그리고 다양성 속에 단일성이 있다는 말이다.<sup>196)</sup>

## 1. 목사

칼뱅은 목사의 소명을 중요하게 여긴다. 목사의 내적인 소명은 “각 일꾼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아는 일이며, 교회는 증인이 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하며 교회를 세우려는 욕구가 있는지를 봄으로써 그의 내적 소명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외적 소명은 딤후1:7과 딤후3:1-7을 근거로 건전한 교리를 믿으며 생활이 거룩하고 그들의 권위를 빼앗거나 그들의 사역에 수치가 될 만한 허물이 없는 사람이다.<sup>197)</sup> 이러한 기준과 함께 교회는 직분 수행에 필요한 기능을 잘 알아 그 기능에 합당한 사람인가를 살피고, 기도에 전념하면서 지혜와 분별의 영을 하나님께 간구하여 직분자를 택해야 한다.

## 2. 교사

칼뱅의 교회론에서 교사의 위치는 중요하다. 선지자의 직분은 그 탁월한 특수계시의 은혜 때문에 더욱 두드러진다. 그러나 교사의 직분도 그 성격이 매우 비슷하며 그 목적이 똑같다.<sup>198)</sup>

칼뱅은 목사와 교사가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직책이라고 주장한다. 교사들은 제자훈련이나 성례집행이나 경고와 권면을 하는 일을 맡지 않고

---

196) O. Weber, 김영재 역, 『칼빈의 교회관』, 75쪽.

197) Inst IV. iii. 11.

198) Inst IV. iii. 5.

성경을 해석하는 일만을 맡는다. 이는 신자들 사이에 건전하고 순수한 교리를 유지한다. 그러나 목사직은 이 모든 의무를 겸한다.<sup>199)</sup>

칼뱅은 이렇게 목사직과 교사직을 구분하면서도 『기독교 강요』 최종판에서는 이 둘을 동일한 직분으로 함께 묶어서 네 직분대신에 세 직분을 말하고 있다.<sup>200)</sup> 마치 오늘날 신학교 교수가 목사인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 3. 장로

칼뱅은 장로에 대하여 “다스리는 사람들은(고전12:28) 신자들 사이에서 선택된 장로들이었으며, 감독들과 함께 도덕적인 견책과 권징을 시행하는 일을 맡았다고 나는 믿는다.”<sup>201)</sup> 라고 말하였다.

칼뱅은 신약에 나오는 직분의 이름을 정확히 번역하여 말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감독, 장로, 목사라는 말들을 상호 교환할 수 있는 것으로 보기도 하였다. 하지만 장로(presbyterian)란 말이 감독(episcopal)과 목사(pastores, ministry)와 함께 모여 있는 대목에서 다스리는 자의 임무는 이와는 별개의 것이라고 시사한다. 장로는 설교하는 직책이 아니라 교회를 이끌고 권징을 시행한다.<sup>202)</sup>

초대교회 때부터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교회에는 재판권을 행사했던 장로회(senatus)가 있었으며, 또한 경험에 비추어 보아 이러한 장로회는 계속 있어야 할 것으로 칼뱅은 생각했다. 또한 칼뱅은 장로들은 반드시 선거

---

199) Inst IV. iii. 4.

200) Inst IV. iv. 1. ; W. Niesel, 이종성 역, 『칼빈의 신학』, 200쪽.

201) Inst IV. iii. 8.

202) Inst. iii. 8.

를 거쳐 세움을 받아야 하지 사람들에게 강제로 떠맡기듯이 임명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한다.

#### 4. 집사

갈뱅은 로마서 12장 8절에서 집사의 직분을 추론해 낸다.<sup>203)</sup> 집사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교회를 위해서 구제사업을 관리하는 집사들과 직접 빈민들을 돌보는 집사들이 있다. 이런 집사 직은 사도들의 교회에도 있었기에 갈뱅은 우리도 그것을 본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한다.

위에서 살펴본바 교회의 직분은 교회의 기능을 올바르게 행하는데 있어서 각자 제 역할을 할 때 비로소 그 빛을 받을 수 있다. 계속해서 위의 내용과 연계해서 권징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자

#### C. 권징

앞에서 살펴본 대로 갈뱅에게 있어서 권징은 교회의 제 3의 표지가 아니었다. 그것은 갈뱅이 단순히 신학자로서 교회에 대한 개념정리만을 하거나, 단순히 철학적 사변의 교회론을 전개시키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역동적인 신학을 했기 때문이다. 즉 참 교회에 대한 갈뱅의 논증에서 로마 가톨릭 외에도 재세례파라는 논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말씀의 권위를 하락시키고 타락된 성례를 가지는 로마교회를 집중적으로 비판하면서도, 권징이나 삶의 모범을 독자적인 교회의 표지로 포함시키지 않은 흠 없이 거룩한 교회를 추구해서 교회의 분리를 일삼는 재세례파에 대항하고, 교회의 공동체성을 확립하기 위함이었다.

---

203) Inst IV. iii. 9.

특히 로마 가톨릭을 향해서는 교회의 흔적이나 유해가 남아 있다고 하면서 온건한 입장을 취하면서도, 재세례파가 교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일절 거부하며, 배교자로 정죄하는 것에서도 갈뱅의 권징이나 삶의 모범을 교회의 표지 밖에 둔 이유를 이해할 수 있게 한다.

권징의 필요성에 대하여 갈뱅은 교회도 하나의 사회임을 지적한다. 즉 조그마한 가족 같은 사회에서도 규율이 없이는 올바른 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면 가장 질서가 정연해야 할 교회에서는 규율이 더욱 더 필요하다. 또한 권징은 교회의 근육과 같은 것으로 이 근육에 의해서 몸의 지체들이 서로 결합되고 각각 그 자리에 있게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권징을 폐지하거나 회복을 막으려는 사람은 결국 교회를 해체시키는데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한다.

교회가 권징하는 목적은 첫째, 추악하고 부끄러운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빼앗으려는 것이다. 둘째, 악한 사람들과 항상 교제함으로써 선한 사람들이 타락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포지는 것(고전5:6)을 지적하면서 그런 자들과 사귀를 금하였다. 셋째, 죄를 범한 사람이 권징을 통해 회개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교회의 권징과 징벌을 통해 그 영이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함(고전5:5)이다.<sup>204)</sup>

권징의 방법을 논함에 있어서 먼저 사적인 죄와 공적인 죄, 허물인 죄와 부끄러운 행동으로 구별한다. 그리고 각각 그 정도를 달리 한다. 사적인 죄에 대해서는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마18:15)는 원리를 따르며, 공적인 죄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두렵게 하라(딤후5:20)고 한다. 또한 가벼운 죄는 충고나 견책을, 중하고 무거운 죄는 더 엄격한 견책으로 권징할 것을 말한다.<sup>205)</sup>

---

204) Inst IV. xii. 5.

205) Inst IV. xii. 3-4.

권징의 방법 중에 극단적인 것을 든다면 출교이다. 그러나 이 출교도 권징의 목적에 따른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깔뱅은 출교조차도 사람을 돌이켜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따라서 출교는 완전한 정죄가 아니다. 출교 당하는 사람들을 영원한 과멸과 멸망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품행과 생활을 비난함으로써 영원한 정죄를 받는 것에서 돌이키고 회개하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 목적이다. 따라서 깔뱅은 극단적인 출교도 저주가 아니며, 장차 정죄 받을 것을 미리 경고함으로써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sup>206)</sup>

또한 교회의 권징의 방법과 수단이 경건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서로 용납함으로 지키라.”(엡4:2)는 말씀에 근거하여 온전하게 시행되어야 할 것을 주장한다. 엄격한 권징의 시행이나 엄격주의는 혼란을 일으킬 뿐이며 교회를 세우기 보다는 교회를 분열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

206) Inst IV. xii. 10.

## VI. 결론

### A. 요약

신구약 성경을 통하여 교회의 어원을 살펴보면 “교회란 하나님의 택하심에 의해 특별한 목적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불래 내어진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신구약 성경을 통하여 볼 때 교회는 “신앙인의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기구(institution)”의 양면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교회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갈뱅이라고 할 수 있다. 갈뱅의 교회론에 대해 알기에 앞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갈뱅의 교회에 대한 사랑이다. 갈뱅에 대한 무수한 평가가 있지만 그 중에서 무엇보다 갈뱅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했던 목회자이며 신학자이다. 사실 『기독교 강요』도 교회에 대한 갈뱅의 사랑의 열매인 것이다.

갈뱅의 교회론 형성에 있어서 그의 성경적 배경이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불문가지이다. 그는 신구약 성경을 관통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필자는 갈뱅의 교회론 형성 배경에 있어서 고대 교부들, 사도적 교부에서 어거스틴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교회론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 갈뱅에게 있어서 고대 교부들의 교회론의 전통은 갈뱅에게 성경의 권위를 뛰어 넘을 만큼은 아니지만 충분한 균형을 맞추면서 교회론의 중요한 규범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었다.

다음으로 갈뱅의 교회론은 역사적이며 구체적이었다. 갈뱅은 그의 교회론을 사변적이거나 형이상학적인 모호한 개념의 진술을 한 것이 아니다. 지극히 현실적이고 구체적이었다. 그가 제네바와 슈트라스부르크에서 목회를 하면서 교회라는 현실을 두고 목회를 위한 교회론이었다. 아울러 그의 교회론은

로마 가톨릭의 교회론과 그들의 행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한 결과물이기에 더욱더 현실적이며 구체적인 것이다.

이런 배경으로 그는 『기독교 강요』 제 IV권에서 교회에 대하여 논한다. 그는 교회의 본질과 그 기능, 교직, 성찬론, 국가론의 순서로 전개해 가는데 이와 같은 주제들을 논할 때마다 당시의 잘못된 교리를 논박하고 있는 것을 적지 않게 볼 수 있다. 갈뱅은 교회에 대한 정의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라고 정의하고, 이 교회는 믿음으로 구원과 영원한 축복의 참여자가 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게 하고 증대시키는 외적인 도움으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한다.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는 그가 가져오신 구원의 영원한 축복에 믿음으로 참여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의 무지와 나태함이 우리를 방해하여 온전한 믿음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 이 때문에 우리에게서 외적인 수단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교회이다.

갈뱅은 선택의 교리를 기초로 하여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에 대하여 논하면서 우리가 보이는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이므로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완전한 교회가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보이는 교회는 어머니 같아서 믿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돌보고 성장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 어머니의 품속과 같은 교회를 떠나서는 잠시도 살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갈뱅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정의한다. 모든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에게 의지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로서 하나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교회의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정의를 통하여 강조하고 있다.

교회의 표지로 갈뱅은 말씀과 성례전을 말한다. 교회의 참된 표지는 이것 외에 어떤 것도 없다고 단언한다. 신약의 고린도교회와 같이 문제가 많은 교회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바른 말씀이 선포되며 성례가 올

바르게 집행되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강조한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직분자를 세우는데 그것이 바로 목사, 교사, 장로, 집사이다. 갈뱅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인 설교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설교를 선포하는 선포자의 중요성도 아울러 강조한다. 특별히 목사와 교사를 세우시고 그들의 입을 통하여 그의 백성을 먹이신다. 그들에게 권위를 주셔서 그 임무를 수행하게 하신다.

앞에서 언급한 모든 것이 원활하게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고 교회가 더욱 교회답게 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권징을 다룬다. 권징은 교회를 바르게 하고 죄인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이지 죄인들을 떠나게 한다거나 오히려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님을 특별히 강조한다.

## B. 제언

갈뱅의 시대에 로마 가톨릭 교회와 시대적인 도전이 있었다면, 이 시대 한국교회에는 교회 안팎으로 새로운 기세로 일어나는 사상들과 이단사이비 분파들의 발흥이라는 양면에서의 도전에서 있다고 할 수 있다. 처음에 논문을 시작할 때, 한국교회의 성장에 비해서 교회론의 부재로 인한 제반 문제, 앞에서는 그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잠시 언급해 본다면, 교회론보다 구원론이 강조 되어서 주일성수에 관한 문제, 성만찬의 경시, 치리권의 상실 등이다.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우리의 문제를 깨달아서 다시금 도약하기 위해서 우리는 갈뱅의 교회론을 교훈 삼아야 한다.

이제 본 논문을 마치면서 갈뱅의 교회론을 중심하여 한국교회를 향한 몇 가지 제언을 하려고 한다.

첫째, 교회론의 회복이다. 한국교회는 구원론 혹은 기독론에 치우쳐서 상대적으로 교회론이 약화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모든 교회 내의

제반 문제 앞에 이유 불문하고 믿음으로 자기 자신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말만 늘어놓는 현실이다. 그리고 교회 밖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교회는 가지 않아도 되느냐 하는 도전 가운데 있다. 여기서 올바른 교회론을 회복하지 않으면 교회 안팎의 도전을 넘을 수가 없을 것이다.

둘째, 앞의 내용과 관련해서 교회로 돌아와야 한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로서 어머니의 품속과 같아 생명의 잉태와 성장이 있는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이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교회를 통하여서 믿음을 보존할 수 있다. 어머니의 품과 같은 교회를 통해서 믿음을 성장케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떠나서는 생명의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없다. 그러기에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다.

셋째, 하나됨의 회복이 필요하다. 교회는 하나이다. 오늘날 특히 한국 교회의 큰 교회들이 분열과 나눔이라는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목격한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당연히 지체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하나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의무이며 당연한 도리이다. 교회의 각 지체들의 하나 됨과 교회 전체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임을 기억해야 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을 지키며 언제나 사랑의 공동체로서 세워져야 한다.

넷째, 성례전을 회복해야 한다. 교회에 말씀과 성례전, 이 두 가지 참된 교회의 표지만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교회이다. 교회가 문제가 없을 수 없다. 하지만 어떠한 문제가 교회에 있더라도 이 두 가지 성례전이 행해진다면 그 교회는 참 교회이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볼 때, 한국교회는 과연 교회의 표지가 제대로 있는가? 말씀의 강화로 인해서 성례전이 상대적으로 너무나 약화되어 있는 현실이다. 일례로 어린아이의 경우 유아세례를 지나면 성인이 될 때까지 전혀 성례전을 경험할 기회가 없다. 갈뱅처럼 성만찬의 경우 한달에 한번 정도는 행해야 한다.

다섯째, 교회에서 권징을 회복해야 한다. 여러 가지 죄에 대하여 교회는 성결해야 한다. 신앙을 맞이하는 신부로서 교회는 거룩함과 순결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러기에 죄에 대한 권징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권징이 사라져 버렸다. 교회에서의 권징은 교회 내의 죄인들을 제거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한국교회 성장이 세계가 주목할 만큼 이루었다 하더라도 한국교회 안에 올바른 교회론의 회복이 없이는 온전한 성장을 이룰 수 없다. 그러므로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교회의 본질을 우선 회복하며, 그 본질 위에서 올바른 교회의 사명(기능)을 다 하는 길이 되어야 한다.

갈뱅의 교회론은 교회의 사명만을 강조하여 사회적 공동체로, 하나님을 위한 교회만이 아니라 세상을 위한 교회로 그 목적이 도치되어 버린 교회들에게 바른 신앙을 세워 주며, 생명력을 잃어버린 교회에 바른 사명을 일깨워 주는 올바른 교회관을 제시해 준다.

## 참고 문헌

### I. 제 1차 문헌

- Calvin, Jean. *Institution de la Religion Chrétienne I. II. III. IV.* Genève: Labor et Fides, 1967.
- \_\_\_\_\_. *Institution of the Christian Religion.* 김종흡 외3인. 『基督教綱要』 上中下.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8.
- \_\_\_\_\_. 『聖書註釋』. 서울: 성서원, 2001.
- \_\_\_\_\_. 『칼빈성경주석』. 서울: 성서교재간행사, 1990.

### II. 제 2차 문헌

#### A. 동서

- 김명용. 『열린 신학 바른 교회』. 서울: 장로회신학대학출판부, 1997.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교육부(편). 『16세기 종교개혁과 개혁교회의 유산』.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3.
- 박건택. 『개신교역사와 신학』. 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1998.
- 원종천. 『칼빈과 청교도 영성』. 서울: 하나, 1994.
- 이양호. 『칼빈: 생애와 사상』. 천안: 한국신학연구소, 1997.
- 이종성. 『교회론』.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9.
- 이형기. 『종교개혁신학사상』.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2.

장로회신학대학 대학원 편집위원회(편). 『어거스틴, 루터, 칼뱅, 오늘의 개혁교회』.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2004.

주재용. 『기독교의 본질과 역사』. 서울: 전망사, 1983.

차중순. 『교회사』. 서울: 대한 예수교 장로회총회출판국, 1992.

총회교육자원부 (편). 『개혁교회의 역사와 신학』. 서울 : 한국장로교출판사, 2004.

\_\_\_\_\_. 『개혁교회의 종말론』. 서울 : 한국장로교출판 사, 2005.

한철하. 『고대기독교』.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5.

## B. 양서

Avis, Paul, D. L. *The Church in the Theology of the Reformers*. 이기문 역. 『종교개혁자들의 교회관』. 서울: 킨콜디아사, 1987.

Berkhof, L. *Christian Doctrines*. 신복운 역. 『기독교 교리사』. 서울: 경천애인사, 1963.

\_\_\_\_\_. *Introduction to systematic theology*. Edinburgh : Banner of Truth Trust, 1974. 권수경, 이상원 역. 『벌콧조직신학』.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1.

Chadwick, Henry. *The early church*. London : Penguin Books, 1967. 서영일 역. 『초대 교회사』.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3.

González. Justo. L. *A History of Christian Thought*. 이형기, 차중순 역. 『기독교사상사』.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88.

Hagglund, Bengt. *History of Theology*. 박희석 역. 『신학사』. 서울: 성광문화사, 1989.

Holtrop, Philip. C. 박희석, 이길상 역. 『기독교강요연구핸드북』. 서울: 크리스

- 찬다이제스트, 1997.
- Jay, Eric G. 주재용 역. 『교회론의 역사』.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6.
- Kelly, J. N. D. *Early Christian Doctrins*. Harper, 1958. 김광식 역. 『고대기독교 교리사』. 서울: 한국기독교문학연구소출판부, 1980.
- Kurt Aland. *Four Reformers*. 김홍수 역. 『종교개혁가들』.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현대 신서, 1984.
- Kuyper, Abraham. *Lectures on Calvinism*. Grand Rapids: Erdmans, 1931. 박영남 역. 『칼빈주의』. 서울: 세종문화사, 1971.
- Moyer, E. S. *Great Leaders of Christian Church*. 곽안진, 심재원 역. 『인물중심의 교회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61.
- Neve, J. L. 서남동 역. 『기독교 교리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65.
- Niesel, Wilhelm. *Die Theologie Calvins. München 1957<sup>2</sup>(1938)(=The Theology of Calvin, Grand Rapids 1980 = 이종성 역. 『칼빈의 신학』. 서울: 기독교서회, 1973.*
- Parker, T. H. L. 김지찬 역. 『존 칼빈의 생애와 업적』.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62.
- Peter Brown. *Augustine of Hippo*. 차중순 역. 『어거스틴의 생애와 사상』.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출판국, 1992.
- Théodore de Bèze. *La vie de jean Calvin*. Chalon-sur-saône cédex :Europresse, 1993. 데오도르 베자(Beza). 김동현 역. 『존 칼빈의 생애와 신앙』. 서울: 목회자료사, 1999.
- Walker, Williston. *A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강근환 외 3명. 『세계기독교회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5.
- Weber, O. (*Die Treue Gottes in der Geschichte der Kirche*). 김영재 역. 『칼빈의 교회관』. 서울: 이레서원, 2001.
- Wendel, François. 한국칼빈주의연구원 편역. 『칼빈의 신학 연구』. 서울: 기독교문

회사, 1986.

\_\_\_\_\_. Mairet, Philip역, *Calvin : The Origins and Development of His Religious Thought* .( Durham : Labyrinth , 1963). 김재성 역. 『칼빈 그의 신학사상의 근원과 발전』.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2.

### C. 논문 및 학위 논문

이수영. “쯔빙글리의 성찬론”. 『교육교회』, 통권 194권. 1992.

이양호.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나타난 교회론”. 미간행 박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대학원, 1985.

전진은. “칼빈과 재세례파의 교회론 비교”.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1997.

정정숙. “쯔빙글리의 교육사상연구”. 『신학지남』, 제 50권. 1983.

한철하. “칼빈신학의 구원론적 이해와 복음사역의 중요성”. 『성경과 신학』, 제 15권. 서울: 한국복음주의 신학회 논문집, 1994.

황정욱. “교회론”. 한국칼빈학회 엮음. 『칼빈신학해설』.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